

碩士學位 請求論文

지도교수 원 명 심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 메이크업, 헤어, 의상 색채중심으로 -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Color System and Color-Diagnosis
Variable Factor : Make-up, Hair and Clothing.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패션마케팅 전공

신 향 선

2002년 6월

국문초록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 메이크업, 헤어, 의상 색상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퍼스널 컬러시스템으로 한국인의 신체색상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를 분석하며 유형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파라미터(Parameter)를 통해 변인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퍼스널 컬러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명하고, 퍼스널컬러 진단의 판단기준 축을 추출하여 시각적 척도를 실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이론적 고찰에서는 색채이론을 근거로 하여 퍼스널 컬러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 색채의 특성과 신체색상의 특성, 한국인의 신체색상의 특성 등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유형의 분포도를 진단하는 색채진단 변인을 알아보았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1차 설문조사와 2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서울, 충주, 울산지역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여성 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피부색 측정과 개인별 면접조사로 컬러진단을 총 343명에게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1차 진단에서는 시각효과테스트의 순간시법방법측정인 CM-508i (Minolta) 측정기로 피부색측정을 하여 유형별 피부색의 Lab 값과 HVC값을 측정하고 피부바탕색을 육안시법으로 유형별 구분을 한다.

2차 진단에서는 감성효과(미적효과)테스트의 일대비교법으로 독일의 Stage Color Cosmetics에서 제작된 PCS 컬러 진단천과 미국의 Donna Fujil Institute에서 제작된 PCS 컬러진단천의 측정도구를 이용해 색상별로 유형을 9가지 PART 분류한 견본(측정도구)을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PCS 컬러 진단천을 활용하여 유형별 구분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색채상품 구매행동에 있어서 색상에 대한 중요도는 의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색채선택 기준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둘째, 패션색채 인식관련에서는 색채의 관심도나 영향력은 높게 나타났지만 그에 반해 자신이 좋아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의 일치도는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신체색상 톤간의 빈도를 보면 여름의 경우 부드러운 톤(Light/Muted), 가을의 경우 짙은 톤(Deep /Muted), 겨울의 경우 선명한 톤(Deep/Bright)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외선에 대한 반응을 보면 차가운 집단보다 따뜻한 집단이 햇빛에 잘 타는 타입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형별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 분석결과는 조화요인으로서는 주름이나 그들이 밝아지고 입체적으로 변화되며, 부조화요인은 칙칙하거나 주름, 그들이 짙어지는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유형의 분포도는 여름> 가을> 겨울> 봄으로 여름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유형별 신체상의 Lab값과 HVC값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 1) 따뜻한 유형과 차가운 유형을 비교했을 때 L(밝기)평균은 비슷한 밝기로 나타났고 a(적색도)평균은 차가운 유형이 더 붉게 나타났으며, b(황색도)평균은 따뜻한 유형이 더 노랗게 나타났다. HVC값 평균은 YR값이 높을수록 따뜻한 유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 2) 계절별 유형의 Lab 값에서 L(밝기)평균은 겨울이 가장 밝게 나타났으며 a(적색도)평균은 겨울과 가을은 비슷한 적색도를 지니고 있고 그에 비해 여름은 붉게 나타났다. b(황색도)평균은 가을이 가장 노랗게 나타났다. HVC값에서 가을이 가장 노랗게 나타났다. V(명도)는 모두 비슷한 밝기로 나타났다. C(채도)는 가을이 채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유형분류에 있어서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예측 가능한 변수로는 Lab 값과 HVC값 중 a(적색도), b(황색도) 변수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퍼스널컬러시스템에 따른 한국인의 컬러이미지 유형은 따뜻한 유형보다 차가운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났고 차가운 유형 중에서도 여름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따뜻한 유형 중에서도 봄의 유형은 그 빈도가 극히 미비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유형별 분포의 차이로 인해 각 유형별로 요인분석에 있어 폭넓은 연구대상을 통해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지역별로 유형분석이 이루어져 유형별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차	iv
표목차	vi
그림목차	viii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5

II . 이론적 고찰

1. 색채 이론	6
2. 퍼스널컬러 시스템 (Personal Color System)	17
3. 한국인의 신체색상의 특징	29

III. 연구방법과 절차

1. 연구문제의 선정	40
2. 연구대상 및 절차	41
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43
4. 자료분석	53

IV . 결과 및 고찰

1. 패션(메이크업, 헤어, 의상)색채관련 구매행동	54
2. 패션(메이크업, 헤어, 의상)색채 인식	55
3. PSC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 및 요인분석	57

4. 유형별 Lab값과 HVC값의 평균값과 분포	65
5. 군집분석(K-평균군집분석)에 의한 유형별 Lab 값과 HVC값	68
6.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Lab값과 HVC값의 유형분류의 변수.....	71
7. 지역(출생지)별 유형의 분포	74
 VI . 결과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75
2. 연구의 문제점 및 제언	81
3.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81
 참고 문헌	83
ABSTRACT	88
부 록	91

표 목 차

<표 1> 컬러이미지	13
<표 2>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	22
<표 3>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출생지, 거주지 분포	41
<표 4> 분류 내용별 문항 수	43
<표 5> 퍼스널컬러 진단척도 - 피부색 분석	46
<표 6> 퍼스널컬러 진단척도 -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 색	47
<표 7> 1단계 - 신체색상 진단	50
<표 8> 컬러 진단천 유형별 색상 - PART 1, 2, 3	51
<표 9> 컬러 진단천 유형별 색상 - PART 4, 5, 6, 7, 8, 9	52
<표 10> 2단계-피부색과 유형별 색상조화 분석 변화요인	52
<표 11> 패션색채상품 구매행동	55
<표 12> 1차 진단 결과 - 1	59
<표 13> 1차 진단 결과 - 2	60
<표 14> 유형별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 빈도분석	62
<표 15> 따뜻한 집단과 차가운 집단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66

<표 16> 유형별의 Lab값과 HVC값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67
<표 17> 분류된 3개의 군집의 Lab값과 HVC값	68
<표 18> 피부측정 값에 따른 분류집단	69
<표 19>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유형에 대한 3개 군집의 빈도 ...	70
<표 20> 단계 선택법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1
<표 21> 제 1 단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식에 의한 분류 결과	72
<표 22> 제 2 단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식에 의한 분류 결과	73
<표 23> 지역(출생지)별 유형의 분포	74
<표 24> 따뜻한 유형과 차가운 유형의 지역(출생지)별 분포	74

그 립 목 차

[그림 1]	색상이 주는 느낌의 상호관계어휘	12
[그림 2]	연구의 변인	40
[그림 3]	PCS진단 기본구조설계	45
[그림 4]	컬러이미지 스케일에 따른 유형이미지	58
[그림 5]	PCS에 따른 유형의 분포	6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소비자의 욕구와 감성이 중요시되므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마케팅 즉, 마이크로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이다. 소비자들은 저마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며 기호경향이 다양해지고 있어 자신에 맞는 전문화, 세분화, 감성화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서 마케팅개념이 감성, 맞춤 등 차별화, 세분화되고 있다. 마케팅 환경의 변화 역시 대량생산소비에서 다중소량생산과 소비자는 개인적 특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지향의 마케팅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낙수(2000) 역시 미래의 소비자는 개인적 취향을 요구하며 맞춤식이나 주문 제작식에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색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맞춤형 칼라개념으로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정된 디자인과 칼라로 대응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을 위해 기존의 대량생산방식에서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전략적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고도정보사회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전(全) 인격에 관여하는 차별화 되고 개인화 된 정보 니즈를 통해 외부의 정보를 자유로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사토 쿠니오,히라사와 테츠야, 이해선 譯, 1998).

사람들은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의 세계는 '개개인이 창조한 개개인의 세계로 구성된' 세계이므로 그들이 요구하는 스타일, 그들의 선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http://www.iridesign.co.kr>, IRI 디자인 연구소).

개개인의 다차원적 자기이미지가 가지는 특성의 파악은 추구혜택의 세분화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상적인 자기이미지를 의류제품을 통해 고양, 강화하고 싶어하며 자기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속성은 색채와 스타일이다(김혜라, 1998).

개개인의 특성이 중요시되면서 패션관련분야에 퍼스널컬러(Personal Color) 이미지 연출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고 여러 뷰티산업영역에서 그 비중과 발전이 크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패션관련분야에서 색채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패션컬러의 특징상 단지 감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색채조화의 활용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1차 적인 개인의 신체색채 특징에 따른 배합의 조건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명확하게 평가하는 척도의 구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끌리는 컬러는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 그리고 피부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색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자신의 컬러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컬러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다(Suzy Chiazzari, 진현중譯, 2002).

따라서,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행색이나 기호도만으로 경쟁력을 기르기보다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신체색과 이미지 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뷰티산업의 부상과 성공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앞으로 기술력이나 마케팅 만으로 경쟁사를 압도할 수 없기 때문에 돋보이는 미적 가치를 통해 제품을 차별화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미적 요소가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제품의 명품화, 서비스화의 예술화를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는 뷰티산업의 대표적인 미적 요소인 색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동기 부여 요소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색채이고, 색채는 하나의 정보로서 역할을 하며 ‘이미지를 지닌 언어’로서 현대 문화 시각 정보의 중요한 구성 인자이다(장수경, 1997).

이윤주(1999)는 색채는 상품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상품의 경쟁력과 마케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

고 새로움을 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요인이라 하였다.

얼굴인상은 대인관계에서 사람의 전체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Hassin&Trope, 2000). 또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사회 생활에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ion&Berscheid, 1972).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특정 인상이나 이미지를 만든다. 사람의 인상이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많이 있지만, 일차적이 것은 보여 주는 모습이다. 색의 의한 개인의 이미지 형성이라는 것은 색이 가지는 복잡성으로 인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러나 분명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색을 선호하거나 선택한다(이정원외, 1998).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만드는 자신의 이미지는 실제 자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이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여 지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인 감성 이미지이다(황상민, 1999).

따라서, 색채는 선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개개인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산업에 응용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퍼스널컬러 시스템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퍼스널 컬러는 인간을 위한 감성제품개발에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 한국인의 감성에 맞는 화장, 의상, 액세서리 등의 배색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색채감성은 소비자에게는 만족감, 쾌적감, 고급감을 창출하고, 기업에게는 제품의 부가가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샤넬, 일본의 겐조 등의 기업은 소비자의 감성이미지 분석과 퍼스널 컬러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성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자국내도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다(<http://www.vildesign.co.kr/colordesign>, 김경인).

기호도나 선호도와 달리 어울리는 색 즉, 배색의 조화 측면으로 볼 때 개개인마다 고유의 신체 색을 지니고 있기에 근본적인 자신만의 색채의 유형

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색상을 알고 그에 따른 기호나 선호의 색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코디네이션이나 스타일등 색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컬러이미지 연출 시 개인의 퍼스널 컬러 이미지에 따른 연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이 된다.

퍼스널 컬러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1980년대에 이르러 캐나다의 캐롤 잭슨(Carole Jackson)이 인간의 이미지를 계절별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Color me beautiful'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퍼스널 컬러시스템의 이론들이 세분화되고 퍼스널 컬러에 대한 컨설팅회사와 관련 제품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에 성공은 자신의 이미지를 최적화 하기 위한 요구와 노력이 점점 빈번한 인간 관계를 이루며 생활하는 현대사에서 필수적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태평양기술연구원, 1999).

본 연구에서는 퍼스널컬러 시스템에 따른 한국인의 피부바탕색의 유형별 분포도를 분석하고 유형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파라미터(Parameter)를 찾아내어 요인분석을 하고 컬러진단 프로그램을 색상(Hue)&색조(Tone),이미지스케일(Image Scale)등의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퍼스널컬러 시스템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신체색상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를 분석하고 유형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파라미터(Parameter)를 찾아내어 한국인의 퍼스널 컬러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명하며, 퍼스널컬러 진단프로그램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관련(메이크업, 헤어, 의상)색상에 대한 구매행동, 인식도, 선호도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퍼스널컬러 진단시스템에 따른 색채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여 색채진단을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셋째, 한국인의 신체색상(피부색, 눈동자 색, 머리카락 색)을 퍼스널컬러 시스템에 따라 유형의 분포도를 밝힌다.

넷째, 유형별 변화요인에서 그 차이를 분석하고 유형별 변인을 제시한다.

다섯째, 퍼스널컬러 진단프로그램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제시한다.

3 .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퍼스널컬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문헌조사와 설문지 및 개인별 면접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색채의 이론 고찰,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특성분석, 한국인의 신체색상(피부색, 눈동자 색, 머리카락 색)을 유형별 분류, PCS(Personal Color System) 진단 측정도구개발, 유형의 분포도 분석 및 색채진단 변인분석을 통해 퍼스널컬러 시스템 활용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II .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색채에 대한 기초이론을 고찰하고 퍼스널컬러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신체색상의 유형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피부색과 의상색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 색채이론

퍼스널 컬러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색에 대한 기초이론을 살펴보았다.

1) 색의 3 속성

피부색과 패션관련 색의 조화를 위한 색상, 명도, 채도와 개개인의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대비의 효과로서 이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색을 지각할 때 표현하는 세 가지 용어는 색상, 명도, 그리고 채도이다. 이들은 각각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빛의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한가지의 색채에 있어서 색상은 빛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명도는 빛의 강도에 의해서, 채도는 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변별할 수 있는 색은 최대 200만 가지이다. 스펙트럼상에서 색상은 최대 약 200가지, 명도는 500단계, 채도는 약 20단계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200만가지 색을 구별할 수 있다(한국색채학회-1, 2001).

그러나 이와 같은 미묘한 색채감각을 표현하고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창안해낸 사람 중에 먼셀이 있다. 먼셀이 사용한 색채표시방법은 색의 3요소인 색상(H), 명도(V), 채도(C)를 사용하여 이들 각각에 기호와 수치를 순차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다.

(1) 색상 (Hue)

적색, 황색, 청색과 같이 색깔을 색상이라고 한다. 표준이 되는 색상은 표색 시스템에 따라 다르나 성질이 비슷한 색의 순서대로 배열해보면 색상에 대한 감각의 변화는 둥글게 반복되는 순환성이 있기 때문에 색상환이라고 한다.

먼셀에서는 적, 황, 녹, 청, 자색의 기본 5색에서 중간색상을 더하여 10색상으로 분류하고 다시 20색상, 40색상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반면 PCCS에서는 12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24색상, 48색상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2) 명도 (Value)

색과 색간의 밝기차이를 느끼게 하여주는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낸다. 명도단계는 무채색을 모두 11단계로 구분하여 모든 색상들의 명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삼는다. 보통 색의 밝기에 따라 흰색에 가까운 밝은 단계는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로 구분한다.

우리 인간의 눈은 색의 3속성 중에서 명도에 대해 가장 예민하며, 그 다음이 색상, 채도의 순서이다(김진한, 2002).

일반적으로 색상은 150종류까지 식별이 가능하며 명도는 200단계까지 구분되고, 채도는 20단계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색채를 선별하고 배색하는 데에는 눈에 민감한 명도단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권은숙, 1995).

(3) 채도(Chroma)

색의 선명도라든가 색채의 강하고 약한 정도를 뜻한다. 채도는 색상이 있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무채색에는 채도가 없다. 채도는 그 색깔을 포함하는 비율로 순색이 100이고, 무채색이 0이다. 동일계열의 색상 중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을 순색이라고 한다.

2) 표색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색의 수는 수십 종류 정도이고, 뛰어난 감각을 지녔다고 하는 화가라도 기껏 1,000종류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색을 나란히 놓고, 양쪽이 같은 색인가 다른 색인가 하는 식별판단은 매우 예민하게 할 수가 있다. 이 식별능력을 기초로 해서 분간할 수 있는 색의 수를 계산하면 750만이 라는 방대한 수에 이른다. 예를 들면 무지개의 색도 식별능력으로 나누면 약 130종류나 된다. 이와 같이 방대한 색의 수를 분류하는 데는 일일이 색명(色名)을 붙일 수 없으므로 과학적 표색 방법을 사용한다. 표색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먼셀표색계(表色系)·오스트발트표색계·CIE표색계(국제조명위원회 표색계)가 흔히 쓰이며, 이 세 표색계 사이의 환산은 간단하다. 먼셀표색계와 CIE표색계는 한국산업규격(KS)에 채용되어 있다.

(1) $L^*a^*b^*$ 표색계

국제조명위원회(CIE)가 1976년에 추천한 색상모형으로 지각적으로 거의 균등한 간격을 가진 색 공간에 의한 색상모형으로 학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색차용 표색계이다.

Lab형식의 L은 명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으로 표시되고 a는 빨강과 녹색의 보색축, b는 노랑과 파랑의 보색축으로 하여 색도를 표시한다. 4원색을 기준으로 +a는 빨강, -a는 녹색, +b는 노랑, -b는 파랑이고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게 되어 있다.

(2) 먼셀표색계

미국의 화가이며 색채연구가인 먼셀(Albert H. Munsell, 1858~1919)에 의해 1905년에 창안되었다. 그후 개량되어 1940년 미국의 광학협회에 의하여 수정된 수정 먼셀표색계를 오늘날 먼셀표색계이다.

HVC형식의 H는 색상을 나타내며 기본색상인 R,Y,G,B,P의 5가지이며 중간에 YR,GY,BG,PB,RP의 5가지색을 더하여, 감각적으로 10등분하여 100색상으로 분할하였다. V는 명도로 무채색을 중심축으로 해서 흑색 0에서 백색 10으로 하여 11단계로 나누었다. C는 채도로 무채색 축을 0으로 하여 수평방향으로 차례로 번호가 증가하면 채도가 높아지게 되어 14단계로 나누었다.

3) 배색조화의 원리

배색의 조화에서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 즉, 색채대비가 그 기초가 된다. 배색은 색상, 명도, 채도라는 3속성에 의해서 조화되지만, 일반적으로 색상을 중점을 두고서 조화를 고려한다.

배색에 있어서 색채조화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괴테 등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며 그 의미는 정보화 사회화, 다양화 사회라는 오늘날 그 문제가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한국색채학회, 2000).

배색 효과에 대해서 조화, 부조화로 평가를 하는 경우 어디가 에는 포함될 것이다. 조화라는 것은 규칙성, 법칙성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령 명암의 단계가 규칙 바르게 조화롭게 되어 있거나 또는 색상환상에서 색상 차가 같은 거리에 배색되어 계획된 색의 조합에 대해서 조화를 보인다는 개념이다.

색채표현에 대한 적절한 척도는 어느 한 색과 그 색에 인접하는 색과의 상호관계와 상관적인 위치, 그리고 어느 한 색과 전체의 색채와의 상호관계와 상관적인 위치에 각자의 판단이 기초를 두는 경우에만 얻어질 수 가 있다(요하네스 이텐, 1990).

색은 하나의 색만으로 사용되기보다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색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일으킨다. 이들 색채간의 배색효과는 궁극적으로 색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화란 질서를 추구하는 철학적인 미가 함축된 최고의 미적 원리이다(권은숙, 1995).

일반적으로 옷을 입을 때, 본인의 피부색과 어울려 좋은 느낌을 주는 색이 있고 부조화를 이루는 색이 있다. 복장색이 피부색과 더불어 조화를 이룰 때 그 부조화는 얼굴에 나타나는 선과 주름들의 원인이 되면서 그늘을 만든다. Doris Pooser(1997)는 부조화 색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색상과 사람의 사이의 경계선은 사람의 인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색채 조화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배색의 이론을 보면 색채 배열이 서로 가깝거나 유사한 관계에 있을 때(유사조화)와 보색 관계에 있을 경우와 강한 대비의 상태(대비조화)에 있을 때 아름답게 조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견해이다. 색채조화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다양성,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태양 광선의 조사시간이나 기후, 주변의 색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한 문제는 아니며,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피부색과 의복색의 조화를 위한 배색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색상, 명도, 채도와 개개인의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대비의 효과로서 이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배색조화의 원리를 보면

첫째, 공통성의 원리로 색상의 동일요소에 의한 조화와 색조(톤)의 동일 요소에 의한 조화가 있다.

둘째, 유사성의 원리는 배색된 채색들이 서로 공통되는 상태와 특성을 가질 때, 그 색채 군이 조화된다. 색상의 유사 상에 의한 조화와 색조(톤)의 유사성에 의한 조화가 있다.

셋째, 명료성이 원리는 두 색 이상의 배색에서 애매하지 않는 명료한 배색에서만 얻어진다. 색상의 대조에 의한 조화와 색조(톤)의 대조에 의한 조화가 있다.

퍼스널 컬러시스템에서의 배색조화의 원리는 색상대비와 대조성의 조화원리를 활용한 시스템이다. 대조성의 조화원리는 피부색이 색상의 대조관계에 있어 한색계와 난색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변화(색상대비)의 분석이다.

색상의 동일성(유사성)의 조화와 대조성의 조화로는 일반적으로 노랑계열의 보색관계에 있는 파랑계열의 색은 서로 강조하는 관계(보색에 의해 채도 대비가 일어나 선명함을 증가시킨다)가 되고, 피부색은 생기가 넘치고 명쾌함이 강조된다.

색상분류방법으로 색상환상에서 가장 따뜻한 색(V5:주황)과 가장 차가운 색(V17:파랑)을 선정하고, 또한 색상환상의 기본색상(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을 선정하고, 각각의 색상의 주변의 색상에 대해서 가령, 빨강을 예를 들면, 빨강이 가장 차가운 색 ‘파랑’방향으로 가까운 경우는 그 빨강은 ‘차가운 빨강’이라 하고, 주황방향으로 가까운 색상의 빨강이면 그 빨강은 따뜻한 빨강이라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종의 ‘조화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근 색의 조화(Harmony of Adjacent Color)역시 색상환 위에서 차갑거나 따뜻한 쪽에 비교적 가깝게 위치한 색들간의 조화로서 감성적 특질이 있다.

4) 컬러이미지스케일(Color Image Scale)

색에 관한 감각적인 판단을 보다 객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개발된 체계이다. 색채 이미지를 형용사 의미분별법(Semantic differential : SD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요인분석법) 색채 이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미지 공간을 설정하고, 각각의 색을 고유한 이미지 공간상의 위치에 배치시킨 것이다.

Kobayashi(1981)는 색채이미지척도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색과 언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모든 색은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 부드러움(Soft)과 딱딱함(Hard), 선명함(Clear)과 회미함(Grayish)의 세속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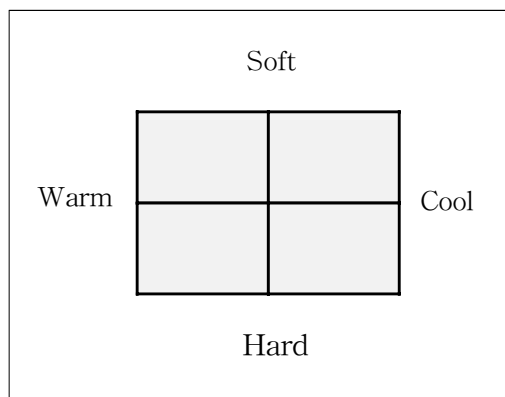
이미지스케일에서는 W-C(따뜻한-차가운)축에 따라 주로 색상 사용방법의 차이가 나타나고, S-H(부드러운-딱딱한)축에서는 주로 명도차이가 표현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미지스케일에서 거리가 떨어진 색끼리 조합하면 대비감이 심한 대조배색이 된다. 거꾸로 거리가 가까운 색을 순서대로 조합해 가

면 온화한 유사배색이 된다.

컬러이미지스케일은 다양한 소비자들에 색채에 대한 이미지를 통계적, 체계적으로 불리하여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김훈철외, 1998).

컬러이미지스케일은 10색상의 12가지 톤(선명한 색조의 20색상)과 10단계의 무채색에 대하여 색 이미지를 측정하여 인자분석을 한다. 색채이미지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색은 따뜻한 색 아니면 차가운 색, 부드러운 색 아니면 딱딱한 색으로 단색의 이미지가 나뉘어진다. 또 흰색에서 회색 그리고 검정에 이르는 무채색 이미지 스케일은 부드러움에서 딱딱함에 이르기까지 타원형의 평면에 위치가 정해진다(김진환,2002).

의미분별법에 사용된 항목 중 컬러가 주는 느낌의 상호 관계 어휘에서 가장 요약된 요소가 Cool, Soft, Hard, Warm으로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색상이 주는 느낌의 상호관계어휘

< 표 1 > 컬러이미지

유 형	컬러 이미지
Warm Soft	프리티 - 귀여운, 달콤한 로맨틱 - 귀여운, 감미로운, 신선한 캐주얼 - 빛나는, 눈부신, 신선한, 쾌적한
Warm Hard	고저스 - 성숙한, 여성스러운, 차분한, 풍부한 클래식 - 고전적인, 전통적인, 깊은 맛이 있는 다이나믹 - 활동적인, 강렬한, 자극적인 에스닉 - 와일드한, 야성적인 내추럴 - 자연스러운, 서정적, 편안한
Cool Soft	로맨틱 - 부드러운, 달콤한, 환상적인 클리어 - 순수한, 신선한, 심플한, 엘리칸트(페미닌) - 깔끔한, 노멀한, 부드러운, 쿨캐주얼 - 젊음, 스마트한, 스피디한,
Cool Hard	모던 - 이지적인, 문화적인, 샤프한, 고상한, 진보적인, 도회적인, 냉정한, 합리적인 시크 - 깊이 있는, 고품격, 동양적인 포멀 - 격조 높은, 장엄한 텐디 - 실용적인, 건강한, 안정된, 원만한

(자료원 : 컬러마케팅전략,다정원, 1998 / 색채표현,조형사, 1999)

컬러 이미지 스케일은 Cool, Soft, Hard, Warm이 4가지 요소로 색채가 주는 느낌을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컴퓨터에 의해 기록되어 있어서 언어를 언어와 색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여 동질성을 갖게 한다. Warm과 Cool을 중심으로 그 강도에 따라 Soft와 Hard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색 계통은 주로 Warm의 이미지와 상통하고, 청색 계통은 Cool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표 1>와 같이 4가지 이미지에 따른 색채의 이미지를 세분화할 수 있다.

상품의 이미지나 기호를 색상을 통해 집약해 보면 이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읽을 수 있고 그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개발되어진 것이 바로 컬러이미지스케일이다(정연수, 1999).

이윤주(1999)는 이미지에는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되며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서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색채의 계획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색상과 색조로 체계화하는 것이 적합하며 시각 이미지와 언어의 이미지에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이미지 전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이며 패션 산업에 있어서도 감성적 요인으로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색채는 상품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상품의 경쟁력과 마케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새로움을 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요인이다.

5) 색채의 감각

색의 감각이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지만 색채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미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색의 감정은 심리적 힘을 가져서 색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며 감정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1) 온도감(따뜻한 색채와 차가운 색채)

모든 색채들은 대체로 따뜻한 색채들이나 차가운 색채들이라는 분류들 가운데 어느 한 쪽 분류에 속하게 된다.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가 갖는 공통적인 속성이다. 이러한 것은 색채의 체계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서의 색채를 말해주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빨강, 주황, 노랑은 보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하므로 따뜻한 색 또는 난색(Warm color)이라 하고 초록, 파랑, 보라색은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찬 느낌을 준다고 하여 찬 색 또는 한 색(Cool color)이라고 한다. 이 온도감은 체험과 관련된 시각적, 심리적인 감정으로 물리적인 온도의 감각과 관계가 있다(박도양, 1977).

색의 온도감은 빨강,주황,노랑,연두,초록,파랑,하양등의 순서로 즉 파장이 긴 쪽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파장이 짧은 쪽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연두,초록,보라,자주등은 때로는 차가운 듯 또, 때로는 따뜻한 듯이 느낄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는 별다른 온도감이 느껴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중간온도의 느낌을 주는 색을 ‘중성색’이라고 부른다(박은주, 1998).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상대주의와 가까운 인식의 심리주의 여명기인 16세기의 자연주의자들에게는 색이 있음과 없음은 단지 외양적으로만 흰색과 검정색에 접근하였을 때 따름이고 실제로는 생산과 변형의 원칙들인 따뜻함과 차가움에 접근하였다. 따뜻함과 차가움은 생산과 변색의 본질적인 양상이다. 이 변증법적인 범주들은 고대인들의 권위에 회의를 던질 뿐만 아니라 유사와 차이에 의해 관찰의 기준을 도입한다(만리오 브루자틴, 이수균 역, 1996).

이 온도감은 색상에 의한 효과가 특히 강하며 같은 한가지 색상의 경우에도 온도가 달라져 보일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온도감은 색상에 의하여 강하게 느껴지지만 명도, 채도에 의해서도 느껴진다. 밝은 명도들은 좀 더 차가우며 어두운 명도들은 좀 더 따뜻하다. 또한 선명한 채도들도 점도 따뜻하며 탁한 채도들은 좀 더 차갑게 느껴진다.

먼셀시스템에서 빨강을 1로 하고 레드퍼플을 20으로 할 때 Hot Color1-6, 19-20, Cool Color 7-10,10-16 ,내추럴 컬러(중간색) 8-9,17-18이다. 또한 무채색에 있어서 저명도는 따뜻한 느낌을 주며 고명도는 찬 느낌을 준다(최영훈, 1990).

조필교, 정혜민(1999)는 색채의 온도감과 성격 특성과의 관계는 반대로 의복을 통하여 분위기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난색계통은 강렬하고 전진적, 충동적, 활동적인 느낌을 주며, 실제보다 확대시켜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반면에 한색계통은 평온하고 수동적이며, 이지적이고, 후진하는 느낌을 주며 실제보다 축소되어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특성을 의복에 이용하면 의복을 통한 개성이나 분위기 표현뿐만이 아니라 체형이나 성격상의 장점을 강조, 단점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중량감 /명암감 (명도의 차이)

색을 시각적으로 가벼운 느낌의 색과 무거운 느낌의 색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명도에 따른 것으로 밝은 색은 가볍고 어두운 색은 무겁게 느껴진다.

배색에 있어서 흔히 높은 명도의 것을 상부에, 낮은 명도의 것을 하부에 놓여 있으므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중량감의 응용이 있다.

파랑이나 빨강이 보라나 주황, 녹색보다도 가볍게 느껴지고 있다. 따라서 난색계열은 가벼운 느낌을 한색계열은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명도와 관계되어 명도가 높은 것은 밝고, 명도가 낮은 것은 어둡게 느껴진다. 그러나 색에 명암감은 반드시 색에 명도에 대응하여지는 것은 아니다(오은경, 1990).

(3) 경연감 (채도의 차이)

이것은 색의 명도에 좌우된다기보다 주로 채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된다. 명도에 관계없이 채도가 높은 색은 강한 느낌을 주며, 채도가 낮은 색은 약한 느낌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색의 경우에 명도와 채도가 낮은 것은 약한 느낌을 주고,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은 강한 느낌을 준다. 여러 색의 배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색의 채도가 낮고 농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강하게 느껴지고 반대로 색 상호간에 명도 차이가 클 경우에는 강한 느낌을 준다. 색상으로 난색계열은 부드럽고 한색계열의 색은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으나, 색채의 경연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도이다.

2 . 퍼스널 컬러시스템(Personal Color System)

퍼스널 컬러시스템(Personal Color System)이란 개개인의 신체고유의 색상(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과의 조화를 이루는 사계절유형의 색채를 진단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에 따라 메이크업, 헤어, 의상 등의 컬러이미지를 연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계절색의 구조 안에서 자신의 퍼스널컬러를 찾는 것으로 신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과 눈의 패턴을 포함하여 오늘날 널리 알려진 분석방법이다.

인간의 색을 처음 발견한 Robet Dorr(1905-1980)는 사람은 피부색에 두 가지색의 기조(Tone)- 두 가지의 기본색: 따뜻한 색과 찬색-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많은 교육현장과 스텐포드, USC, UCLA대학에서 그의 색 이론을 입증하였다. Robet Dorr(1905-1980)의 Color Keys 기본색은 오늘날 컬러분석가들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그의 시스템은 지금은 두 가지 영역에 활용하게 되었다. 확실히 다른 피부 톤인 푸르거나 금빛을 반사하는 톤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에 의해 Color Key System: 마젠타의 조화와 블루의 조화 그리고 오렌지의 조화와 금빛의 조화이다.

그러나 Robet가 계절색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그의 따뜻한 색과 찬색을 기초로 독일의 요하네스 이텐 (Johannes Itten.1888-1967)이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색의 구성을 계절의 4가지 타입을 적용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개인의 선호 색상에서 색조와 농도에 있어 그들의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과 일치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Carole Jackson, 1980).

요하네스 이텐이 처음으로 계절색의 기초가 되는 색을 발견하였다. 독일에 바우하우스에서 1919~1923년 동안 색에 대한 이론을 교육하면서 인간의 얼굴과 일치하는 4가지의 계절색 이미지에 대한 구성과 얼굴색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서 연구하였다(Brigitte Gautier&Claude Juillard.,1999).

Bernice Kentne(1991)에 의하면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는 사람들의 성

격패턴(양식)에는 우울한 (겨울),냉담한(여름),쾌활한(봄),그리고 성급한(가을) 것으로 발견하였다고 한다. Bernice Kentner은 히포크라테스의 ‘성격이론’과 인간의 사이에 연결하여 ‘Color Me A Season’의 책을 발간하였다.

퍼스널컬러 시스템에 기초를 이루는 세 가지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색을 처음 발견한 Robert Dorr(1905-1980)의 신체색상‘Color Keys’ 기본 색 즉, 피부색에 두 가지색의 기조(Tone)은 따뜻한 색과 찬색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요하네스 이텐 (Johannes Itten)이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색의 구성을 계절의 4가지타입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셋째,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사람들의 성격패턴(양식)에는 우울한(겨울),냉담한(여름),쾌활한(봄),그리고 성급한(가을)것으로 나누었는데 지금은 성격적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의 피부바탕색과 색이 가지고 있는 계절적 특성과 결합하여 이미지 메이킹에 중요한 시스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1980년대 이르러 캐나다의 캐롤 잭슨은 인간의 이미지를 계절별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의 적합한 색채 파レット를 제공함으로써 어울리는 의상과 색채 화장법을 제안하여 이를 ‘Color me beautiful’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연은 최고의 디자이너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분명히 특정한 색을 선호하게 된다. 본래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색을 더 좋아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컬러들은 대개 우리들이 타고난 컬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라고 캐롤 잭슨 (Carole Jackson)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Color, 2002).

이와 같은 근거로 세분화된 퍼스널컬러시스템에 관한 이론들이 성립되었다.

본 연구자는 퍼스널 컬러진단 프로그램에 사용할 측정도구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여 유형별 특성을 구분하였다.

1) 퍼스널컬러시스템의 이론들

(1) Carole Jackson 이론

캐롤 잭슨(Carole Jackson)의 이론은 1980년에 처음으로 ‘Color Me Beautiful’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캐롤 잭슨 퍼스널 컬러시스템의 기본개념인 자신의 고유의 색(natural color) 즉,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 등 타고난 신체 색상에 따라 퍼스널컬러를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캐롤 잭슨은 신체의 3색소인 헤모글로빈, 케로틴 멜라닌의 분포에 의해 피부색이 형성되고 개개인의 특유의 피부 톤은 이 3가지 색소에 의해 따뜻한 톤의 피부와 차가운 톤의 피부로 구분하고 따뜻한 톤의 피부는 노르스름한 톤(golden undertone)으로 봄과 가을로, 차가운 톤의 피부는 푸르스름한 톤(blue undertone)으로 여름과 겨울로 분류하였다.

(2) Donna Fujii 이론

Donna Fujii는 1978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컬러 분석가로 미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1991년에 ‘Color With Style’을 출간하였다. Donna Fujii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리고 히스패닉계통에 따라 달리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피부색은 인종별로 Cool-Light, Cool-Dark, Warm-Light, Warm-Dark로 구분하였고 머리카락은 인종마다 다르게 분류하였다.

백인종의 경우 Blondes계열과 Brunettes and Redheads계열로 나누어서 구분하였고 계절별로 Low Contrast와 High Contrast로 분류하였다. 황인종의 경우는 Starlight, Midnight, Moonlight, Frost, Horizon, Sunrise, Sunlight, Sunset, Twilight로 구분하였다. 흑인종은 Mahogany, Ebony, Copper,

Golden으로 분류하였다. 히스패닉계통 경우는 Rose, Onyx, Bronze, Topaz로 분류하였다.

(3) Doris Pooser 이론

Doris Pooser는 1980년대 초부터 활동하면서 ‘Always in Style’을 펴냈다. Doris Pooser 의 이론은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Warm, Cool, Deep, Light, Bright, Muted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4가지의 유형을 분류하여 전체 2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Deep유형은 Deep/Warm, Deep/Bright, Deep/Muted, Deep/Cool이며, Light유형은 Light/Bright, Light/Warm, Light/Muted, Light/Cool이며, Bright유형은 Bright/Deep, Bright/Light, Bright/Warm, Bright/Cool이며, Muted유형은 Muted/Warm, Muted/Cool, Muted/Deep, Muted/Light이며, Warm유형은 Warm/ Deep, Warm/Light, Warm/Bright, Warm/Muted이며, Cool유형은 Cool/Deep, Cool/Light, Cool/Bright, Cool/Muted로 구분하였다.

(4) Mary Spillane & Christine Sherlock 이론

Mary Spillane는 1983년에 영국과 유럽에 CMB에서 교육하였고 Christine Sherlock 은 1985년부터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1995년에 함께 ‘Color Me Beautiful’s Looking Your Best’를 발간하였다. 그들의 이론은 기본적인 사계절유형에서 봄타입을 Light, Warm, Clear로 분류하고 여름타입은 Light, Cool, Soft로 분류하고 가을타입은 Soft, Warm, Deep으로 분류하고 겨울타입은 Deep, Cool, Soft로 분류하여 12유형을 분류하였다.

(5) Darene Mathis 이론

Darene Mathis 이론 역시 캐롤 잭슨의 이론을 근거로 1999년에 ‘Women of Color’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그의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유형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하고 봄은 Warm and Bright, 가을은 Warm and

Earthy,여름은 Soft Cool ,겨울은 Cool로 유형별 색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또한, 사계절유형별 컬러이미지를 각 유형별 Classic and Neutral, Soft and Romantic, Natural and Earthy 의 3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6) Petits Pratiques 이론

프랑스 Petits Pratiques의 ‘A chacune ses couleurs’에서는 사계절로 구분하며 유형별 각각 Light와 Dark로 구분하여 8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2) 사계절유형 색채의 특성

사계절유형분리의 요인으로는 제 1 요인인 색상(Hue)에서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을 구분하고 따뜻함(Warm)에는 봄과 가을유형, 차가움(Cool)에는 여름과 겨울유형이다. 제 2 요인인 톤(TONE)에서 소프트(Soft)와 하드(Hard)로 구분하고 소프트(Soft)에는 봄과 여름유형, 하드(Hard)에는 가을과 겨울유형이다.

(1) 따뜻한 색(Warm)과 차가운 색(Cool)의 특징

모든 색에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어 구분하듯이 따뜻한 색과 찬색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색에서 한색과 난색으로 구분하는 것은 색의 온도감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더 깊게 색의 혼합에서 오는 변화를 보면 어떤 색과 혼합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빨강을 부면 일반적으로 연상하기를 뜨거움을 상징하여 따뜻한 색으로 인식하는데 빨강에도 차가운 빨강과 따뜻한 빨강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원색의 빨강에 따뜻한 톤을 지닌 노랑계열(노랑, 주황, 황색등)을 혼합하면 다홍빛의 빨강이 되며 차가운 톤의 파랑계열(파랑, 흰색, 검정색등)을 혼합하면 푸른빛의 차가운 빨강이 된다. 이렇듯 모든 색에는 따뜻한 계열의 색과 찬색계열의 색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따뜻한 색은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황색을 지니고 있으며, 찬색은 기본적으로 푸른색과 흰색, 검은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피부색 역시 따뜻한 색과 찬색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이다.

특히, 황인종인 우리 나라 사람의 피부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밝기 즉, 명도나 채도로만 구분되어져 왔다. 그러나 단지 그것으로 같은 색이라고 해도 어떤 이는 어울리고 어떤 이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명도차이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색상, 명도, 채도의 조화의 원리에 속한다. 또한, 개개인마다 각기 지니고 있는 색의 톤이 다르고 특징이 있기에 단순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피부색이 따뜻한 색인지 찬색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신체색상은 뒷머리두피색,손목안쪽색,눈동자색,머리카락색등을 보고 노르스름한 빛이 도는지 푸른빛과 흰빛이 도는 지에 따라 따뜻한 색과 찬색을 구분하게 된다(Color Me Beautiful, 1980).

< 표 2 > 따뜻한 색(Warm)과 차가운 색(Cool)

따뜻한 색 (W) 봄 ,가을	모든 색에 명도와 채도와 상관없이 노란빛(노르스름한 색)이나 색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무채색은 속하지 않는다.
찬 색 (C) 여름,겨울	모든 색에 푸른빛(푸르스름한 색)이나 흰 색,검은 색을 지니고 있는 색이다.

(자료원: Color Me Beautiful,1980)

(2) 사계절색상특징

자연이 계절마다 특징이 있듯이 색에도 계절의 특징을 지닌 색이 있어 모든 색을 사계절로 구분된다. 크게 따뜻한 색으로는 봄과 가을, 찬색으로는 여름과 겨울로 구분한다. 봄과 가을에는 따뜻한 계절의 노르스름한 색을 지니고 있고 여름과 가을에는 차가운 계절의 푸르스름한 색을 지니고 있다.

사계절색상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퍼스널 컬러시스템 이론과 컬러이미지스케일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① 봄 타입

a. 이미지

봄 색상의 기본색은 노란빛을 지닌 색으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등 어떤 색상이든지 노란색을 지닌 색으로 따뜻한 톤으로 선명하고 강하여 원색이 주를 이루며 밝고 화사한 색으로 생동감 있고 투명한 색이다. 봄 사람의 이미지는 밝고 화사하고 생동감을 지니고 있어 실제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귀여운 스타일이 많다.

- . 워밍 로맨틱(Warm Romantic)이미지 - 따뜻한 계열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옅고 소프트한 맑은 색의 낭만적 이미지
- . 프리티(Pretty)이미지 - 로맨틱한 이미지보다도 약간 화려한 느낌으로 귀엽고, 감미로운 이미지
- . 캐주얼(Casual)이미지 - 개방적으로 친숙하기 쉬운 이미지이며 따뜻한 계통으로 명쾌한 이미지
- . 스포티(Sporty)이미지 - 경쾌하고 활동적인 색으로 비비드한 톤으로 율동적인 이미지
- . 워밍 클리어(Warm Clear)이미지 - 따뜻한 계열로 선명하거나 명석한 색으로 깨끗함과 신선한 이미지

b. 어울리는 색상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가미된 선명한 원색과 중간색의 베이지 색, 핑크 색, 산호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옥색 등 밝고 산뜻하며 화사한 색상이 잘 어울린다.

c. 피해야 할 색상

흰빛과 푸른빛을 지닌 찬 톤과 무겁고 칙칙한 색상은 피해야 한다. 특히, 찬 색 계열과 검정색과 흰색, 회색, 청회색, 청색, 은색, 와인색, 너무 어두운색 등은 피해야 한다.

d. 톤(Tone)

웜 소프트(Warm Soft)한 톤으로 명도가 높고 중채도에서 고채도이다.

- Pale Tone/ Light Tone/ Vivid Tone

② 여름

a. 이미지

여름색상은 흰색이 기본 색상이다. 어떤 컬러라도 거기에 흰빛이 섞여 있으면 여름컬러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색상에 흰 기운도 있어 자연색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지만 선명하지 못한다. 여름 타입 사람의 이미지는 다소 차가우면서도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이다. 색상과 스타일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로 낭만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 . 쿨 로맨틱(Cool Romantic) 이미지 - 차가운 계열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옅고 소프트한 맑은 색의 낭만적 이미지
- . 엘레강스(Elegant) 이미지 - 품위있고 고상한 이미지로 부드러운 색을 중심으로 한 온화한 색의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
- . 노블(Noble) 이미지 - 강렬함이 없는 밝은 회색계열의 색과 보라색계통을 중심으로 귀족적이고 고상한 이미지
- . 시크(Chic) 이미지 - 엘레강스와 댄디에 걸친 차가운 계열에 온화하고 우아한 이미지

. 쿨클리어(Cool Clear)이미지 - 차가운 계열로 상쾌하고 산뜻한 이미지

b. 어울리는 색상

여름색은 기본적으로 흰빛을 많이 띤 색상이 잘 어울린다. 부드럽고 차가운 느낌의 핑크색이나 색상이 튀지 않는 파스텔계열이나 화이트베이지, 연블루 계열, 연 회색 계열이나 연보라계열 등으로 중간색이 주를 이루며 포인트로 자주색이나 초콜릿색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흰빛을 지니고 있어 불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c. 피해야 할 색상

검정색, 너무 어두운 색, 반사적인 색과 따뜻한 색으로 예를 들어 금색, 오렌지색, 노란색을 바탕으로 한 밤색 등은 피해야 한다.

d. 톤(Tone)

강한 태양광선에 강한 명도로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을 지닌다.

- Light Tone/ Greyish Tone

③ 가을 타입

a. 이미지

가을 컬러는 누렇게 물이 든 우리 나라 가을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황색빛을 띠면서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컬러가 가을에 속한다.

봄 컬러와 가을 컬러를 구분하자면 노란빛이 감돌기는 하지만 황색 빛이 주를 이루기에 가라앉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을에 속하는 컬러이다. 가을 타입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친근감과 편안함을 주는 이미지로 자연스럽고 고전적이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 내추럴(Natural)이미지 - 소박한 감각에 온화하고 차분한 자연스런 이미지

. 클래식(Classic)이미지 - 진한 색과 어두운 색의 배색에 탁색 중심으로 짙고 따뜻한 색으로 전통적인 깊이 있는 고전적이고 중후한 이미지

. 고저스(Gorgeous)이미지 - 화려한 색에 어두운 색의 배색으로 호화로운 이미지

b. 어울리는 색상

따뜻한 톤에 황색 빛을 지닌 색으로 자연스럽고 차분한 계열로 금색, 구리 빛 색, 베이지색, 카멜색, 카키색, 복숭아 빛 색, 갈색계열, 올리브 그린 등이 주요색으로 전체적으로 자연의 색을 주로 한다.

c. 피해야 할 색상

찬 톤 계열과 검정색, 흰색, 너무 반사되듯이 선명한 색, 차가운 바탕 색 등은 피해야 한다. 특히, 은색이나 청 회색, 청 보라색, 원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d. 톤(Tone)

짙고 선명한 채도가 높은 색, 안정감 있는 색, 그라데이션이 특징이다.

- Deep Tone/ Dull Tone/ Dark tone

④ 겨울 타입

a . 이미지

겨울 컬러는 여름컬러와 마찬가지로 푸르면서 흰색이 기본 색상이다. 푸른 빛이 감도는 색 중에서도 강하고 가라앉는 느낌을 주는 색상이 겨울 색으로 선명하고 어두운 계열이 주를 이룬다. 특징을 보면 콘트라스트가 강한 편으로 모던하고 심플하며 강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 모던(Modern)이미지 - 심플하고 샤프한 개성적인 이미지로 비즈니스 라이프적인 이미지

. 댄디(Dandy)이미지 - 명도가 낮은 색으로 콘트라스트가 있는 배색에 침착하고 격조 있는 남성이미지

. 퍼멀(Formal)이미지 - 어두운 색을 중심으로 진한 색과 회색빛의 청색계통 색의 배색으로 격조 높은 이미지

b . 어울리는 색상

기본적으로 찬색으로 검정과 흰색, 흰빛을 지닌 연한 파스텔 톤과 푸른빛을 지닌 원색으로 레드나 와인, 자주계열, 네이비 블루계열이나 청블루, 청회

색, 청 보라 등이 주요색으로 강렬하면서 대조되는 색이 잘 어울린다.

c . 피해야 할 색상

따뜻한 색으로 불투명한 파스텔 톤이나 주황색계열 밤색계열, 카키계열, 황색은 피하며 특히 탁하고 희미한 색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피한다.

d . 톤(Tone)

명도가 낮고 어두운 이미지이며 반면 순색의 선명한 색으로 콘트라스트 강하다. - Vivid tone/ Dark grayish tone / Mono tone

3) 유형별 신체색상의 특성

사람은 개인마다 피부와 머리카락, 눈동자 등에 고유색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적·황·갈의 3가지 색소를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색소로 인해 피부색이 구분되어진다. 피부색 역시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구분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황색 피부를 구분할 때 명도중심으로 밝은 피부, 중간피부, 어두운 피부로 구분하는데 피부색구분에서는 명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색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모든 색에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 있듯이 신체 색상 역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것이 퍼스널컬러시스템에서 신체색상을 구분하는 요인이 된다.

다음은 퍼스널컬러시스템의 이론 중 Carole Jackson(1980), Darene Mathis (1999), Spillane, M & Sherlock, C(1995) 이론 중심으로 유형별 신체색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봄 유형

봄 색상의 특징은 대부분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신체색상은 'golden undertone'으로 따뜻한 톤을 지니고 있다. 아프리카-아메리카와 히스패닉계통은 밝고 골드 빛을 지닌 깨끗하며 환하게 보이며, 아시아인은 매우 밝은 아이보리피부를 지니고 있다. Spillane, M & Sherlock, C(1995)는 봄

유형을 Clear, Warm, Light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

- . 피부색 - 기본적으로 Peaches와 Cream톤을 지니고 있으며 볼부분이 붉으스름하여 혈색이 좋은 피부를 지니고 있다.
- . 머리카락 색 - golden blond, medium-light red, gold brown등의 밝고 따뜻한 톤으로 회색기미의 색은 지니지 않고 있다.
- . 눈동자 색 - 밝고 깨끗한 아쿠아 그린과 토파즈 톤의 블루와 골든 갈색 이주를 이룬다.

(2) 여름 유형

여름 색상의 특징인 회고 푸른빛을 지닌 차갑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 주를 이룬다. 신체색상은 'blue undertone'으로 강하고 밝은 톤보다 중간 톤으로 콘트라스트가 약한 편이다. Spillane, M & Sherlock, C(1995)는 여름 유형을 Light, Cool, Soft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

- . 피부색 - 대부분 Pinkish톤을 지니고 있어 붉은 피부톤으로 구분한다. 특히 볼 부분에 붉은 핑크빛을 지니고 혈색 있어 투명해 보이며 Pale beige, rosy beige, gray brown계열이다.
- . 머리카락 색 - 여름 유형의 머리카락 색은 어릴 때는 밝고 자라면서 머리 색이 어둡게 변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회색기미(ash)를 지니고 있는 light or dark ash brown, ash blond계열이다.
- . 눈동자 색 - 부드럽고 흐린 cool blue or gray blue, soft brown계열이다.

(3) 가을 유형

가을 색상의 특징인 깊고 풍부한 색으로 신체색상은 'golden undertone'으로 따뜻한 톤으로 차분한 중간 톤과 어두운 톤이다.

Spillane, M & Sherlock, C(1995)는 가을 유형을 Soft, Warm, Deep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

- . 피부색 - 중간 톤과 어두운 톤으로 ivory, peach, golden beige, brown계열

로 볼에 혈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 머리카락 색 - 대부분의 가을 유형에는 reddish기미를 지니고 있으며 aburn, copper brown계열의 적갈색과 검정색이다.
- . 눈동자 색 - 대개 golden brown, olive green, black계열로 깊고 어두운 톤이다.

(4) 겨울 유형

겨울 색상의 특징인 선명하고 강한 색으로 신체색상은 'blue or blue-pink undertone'으로 차가운 톤이며 밝고 어두운 톤으로 콘트라스트가 강하다.

Spillane, M & Sherlock, C(1995)는 겨울 유형을 Deep, Cool, Clear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

- . 피부색 - 창백하거나 핑크톤을 지닌 피부로 매우 희거나 어두운 편이다.
- . 머리카락 색 - 기본적으로 어두운 검정계열이 주를 이루며 어두운 갈색톤과 흰색계열이다.
- . 눈동자 색 - 깊고 어두운 검정이나 gray-green, hazel, dark blue계열로 비교적 선명하고 어두운 톤이다.

3 . 한국인의 신체색상의 특징

자연계의 동, 식물은 모두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 역시 자신만의 색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피부색, 눈동자 색, 머리카락 색은 개개인의 개성을 연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은 고유의 색 중심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에 개성을 최대한 살리는 색 탐구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피부색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눈으로 물체의 전체 색을 느끼며, 색으로 둘러싸여져 생활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딱 한가지 색만을 보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주위의

색, 인접 색과 함께 보고 있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본래의 피부색 또한 주위 색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피부색을 보다 건강하고 젊고 빛나 보이게 해주는 어울리는 색과 그와 반대로 얼굴 색을 칙칙하고 어둡게 보이게도 하고, 황색이나 청백색으로 건강하지 않게 느껴지게도 하며 그 사람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하는 등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색이 존재한다.

사토 쿠니오,히라사와 데츠야(1998)는 대부분에 기본색은 피부색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피부색과 어울리지 않는 유행색은 오래가지 못하고, 양적 판매도 기대하기 어렵고 하였다.

주변에 인접한 색 하나로 이처럼 다르게 보인다고 한다면 보다 자신을 좋은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 색이 존재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그러한 색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퍼스널컬러, 어울리는 색의 기본이 되는 것은 피부색이라고 할 수 있다.

피부색의 연구를 보면 인류학과 의학의 입장에서 본 것, 일반미용과 영화, TV등의 메이크업에 관련한 것, 또는 인쇄, 사진, TV등에 있어서의 색 재현에 관한 것 등 그 분야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피부색을 객관적으로 표기하는 목적으로 측색 용구로서의 이 각종의 피부색표가 개발되어 왔다. 최근 급속한 전자 기술 공학의 진보에 의해 측색기의 고기능화, 소형화, 간편화가 진행되며, 측색에 의한 분석적인 피부색의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의 개발에 수반되어 미디어간 상호의 색채와 내용과 피부색의 일보 전진해 화상으로서의 얼굴을 대상으로 이 차원적으로 피부색을 연구하게도 하며,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 선호도에 관한 연구도 실시되어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태평양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9).

1) 피부색의 특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이 다른 이유는 태양의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 대표적인 색조가 멜라닌으로 모든 인간의 몸에 지니고 있는 피부색의 색조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사람들은 노란 피부라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노란색은 아니다. 그들의 피부는 멜라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갈색의 색조이다. 흰 피부 역시 진짜 흰색은 아닌 것이다. 그들의 피부 역시 멜라닌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멜라닌 색소의 농도와 다른 색소의 배합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다. 본래의 아메리칸 역시 레드(붉은)피부가 아니다. 그 피부는 멜라닌이 포함된 갈색계열로 헤모그로빈 색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피부이다. 또한 핑크빛 피부가 너무 많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매우 밝은 갈색피부로 변하는 경우가 멜라닌 색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색은 헤모글로빈의 붉은색, 기저층의 멜라닌으로 구성된 갈색, 유극층에 있는 케로틴의 황색 등의 색이 겹쳐서 과립층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므로, 이 3가지 색소가 피부 중에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된다. 백인의 표피는 일반적으로 얇으므로 비교적 혈액의 붉은 색이 잘 투시되는 상태이고, 황색 인종에서는 피부 색소 속에서 유층에 포함된 케로틴 황색소가 비교적 많으므로 노랗게 보이는 상태이고, 흑인에서는 기저층의 멜라닌 색소인 갈색이 매우 많은 상태이므로 유난히 검게 보인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린이에서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감에 따라 달라지며, 햇볕에 의해 여름철에 멜라닌 색소의 증가로 인한 피부색이 검어지기도 하며, 그때 그때의 건강 상태가 얼굴 피부색에 그대로 나타나므로 피부색은 늘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류영미, 2000).

피부색은 표색계의 색입체에서 색상은 Y, YR, R의 계열 범주 안에서 배치하였다. R의 요인은 혈액, Y의 요인은 카로틴, 명도 결정요인은 멜라닌 색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부뿐 아니라 모발, 홍채의 색 역시 피

부색만큼이나 다양하며, 그러한 현상들도 인종, 자연환경, 유전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한국색채학회 3, 2000).

(1) 피부색의 결정요인

인간의 피부색이 다양한 것은 피부색이 적색(헤모글로빈),황색(케로틴),갈색(멜라닌)이라는 이 3가지의 색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적, 황, 갈색의 3가지의 색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색소가 피부 중에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되는 것이다.

피부색은 일차적으로 멜라닌, 혈관분포와 혈색소, 카로텐 및 각질층의 두께 등 여러 가지 생체학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어지며 이중 멜라닌 색소는 피부색 결정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표피의 멜라닌 세포수는 민족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백인종, 흑인종의 피부색 차이는 색소 세포의 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색소 세포의 멜라닌을 만드는 작용에 차이에 의한다(김병우, 1993).

첫째, 피부색소에 의해 피부색이 형성된다.

피부색소의 3대 요소인 멜라닌, 헤모글로빈, 케로틴에 의해 달라진다. 멜라닌 색소는 갈색이나 검정의 색을 이룬다. 만약에 감자나 사과를 잘라서 놓아 두면 갈색과 검정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은 멜라닌에 의한 경우이다. 얼룩말의 줄무늬와 표범의 점무늬, 개구리의 줄무늬 역시 멜라닌의 경우이다. 사람의 피부와 눈, 머리카락에도 멜라닌색소를 가지고 있다.

피부색의 갈색이나 모발·홍채의 빛깔 등은 멜라닌에 의해 구성된다. 갈색 또는 흑갈색 색소로, 피부에서는 표피 또는 모근에 있는 멜라노사이트라는 흑색세포(黑色素胞) 내에서 생성된다. 멜라닌 과립의 양이 많으면 피부색은 황갈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하고, 양이 적을수록 빛깔이 옅어진다. 햇볕에 그 을리어 피부가 검어지는 것은 멜라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http:// www.encyber.com](http://www.encyber.com). 두산세계대백과, 2000).

멜라닌은 세포 내의 효소작용으로 아미노산의 일종인 티로신에서 몇 단계를 거쳐 합성되어 멜라노좀이라는 세포 내의 소기관에 침착하여 멜라닌 과립이 생성된다. 완성된 멜라닌 과립의 형태·크기 그리고 침착의 정도는 유전적인 지배를 받는다. 개인이나 인종에 따라 피부나 모발의 빛깔이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케로틴 색소는 호박과 당근의 오렌지색으로 이루어져 동,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여 있다. 피부색에서는 황색색소를 지니고 있어 노르스름한 피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색소이다.

헤모글로빈 색소는 우리의 혈액이 지닌 붉은 색으로 이루어졌다. 철을 품는 포르피린 고리와 단백질의 일종(글로빈)으로 되어 있다. 피부색에서는 붉은 색소로 붉으스름한 피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색소이다. 인종의 피부색을 좌우하는 멜라닌 세포의 숫자는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인종을 구분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인 피부색은 멜라닌 입자의 크기와 그 입자가 떨어져 나갈 때의 진행과정으로 결정된다. 피부색을 형성하는데 피부색소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부 두께도 포함된다. 피부가 얇으면 얇을수록 또는 투명할수록 붉게 보이고, 상피층이나 각질층이 두꺼울수록 노랗게 보이는 것은 현상이 있다(<http://www.encyber.com>. 두산세계대백과, 2000).

둘째, 환경과 기후조건에 따라 피부색깔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열대지방에 사는 인종은 피부가 검고 온대나 한 대 지방에 사는 종족은 피부가 흰 것은 바로 자외선 조사량에 적응하기 위한 오랜 시간에 걸친 유전적인 현상이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는 크기, 수 및 수상 돌기가 증가하며 멜라닌 형성이 촉진된다(이유신, 1992).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공기와 햇빛으로부터 피부가 타는 것은 멜라닌에 의해서이다. 만약 햇빛으로부터 적은 시간에 노출되었다면 피부에 멜라닌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셋째,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부모와 지역(오랜 전부터 산 곳) 즉 조상, 태양에 의해 그리고 멜라닌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피부는 작은 조직의 색인 멜라닌이다. 부모중 한사람이 밝은 피부를 지니고 한사람은 어두운 피부를 지닌다면 그들의 아이들은 밝고 어둡거나 그 사이의 피부를 지닌다.

피부색은 부모나 조상들에 의해 태어나거나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지역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Katie Kissinger, 1994).

(2) 피부색 측정

피부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부색을 포함한 각종의 광학적 계측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색조사는 육안과 측색기를 통하여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육안검사에서는 광원의 조건이 중요하다.

피부색의 측정에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기능인 인간의 눈을 센서로 하는 색에 의한 시감비교방법으로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많은 피부색 표가 작성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이 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 피부와 색표와의 재질의 차이에 의한 비색의 어려움과 신체 각 부위의 곡면의 요철(굴곡)에 의한 배색 작업을 어려운 도움으로써 피부색 표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를 어려움에 대한 꽃임을 알 수 있다. 피부의 투명도, 광택도, 분광특성에 따라 일반 색지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2) 머리카락 색의 특성

모발의 색은 인종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이 있지만 멜라닌 색소 합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멜라닌 색소는 모발을 착색시키고, 두피를 과도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색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색 역시 멜라닌색소에 의해 구분되어진다.

멜라닌 색소는 두 가지의 흑갈색을 나타내는 유 멜라닌(Eumelanin)-이것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어두운 색소로 흑색과 갈색 모발과 관련 있으며 황색과 적색의 멜라닌인 페오멜라닌(Pheomelanin)은 좀더 밝은 색소로 금발, 적황색과 빨간색 모발로 나타난다.

각 화합물질인 아미노산은 각각의 역할을 하나 이중 특히 색상에 관계되는 아미노산인 tyrosine을 원료로 하여 형성되는 흑멜라닌, 적멜라닌, 혼합멜라닌등은 과립(granule)을 형성하여 멜라닌의 유형과 분포 양에 따른 정도 등의 요인에 의해 모발의 밝기를 결정시켜 사람마다 독특한 모발 색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멜라닌의 유형과 과립의 크기에 따른 흑색, 적색, 금발 등의 다양한 모발색상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붉은 머리의 색상은 붉은 색소와 검정 색소에 의해 나타나며, 금발머리는 붉은 색소와 노랑색소의 혼합인 결과 색이다. 모래 빛 갈색머리는 붉은 색, 갈색, 검정색 색소의 혼합에 의해 색소가 나타나며 짙은 갈색머리는 모래 빛 갈색머리보다 검정색 색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흰머리에는 색소 알갱이가 없는 색을 나타낼 수 없는 머리색이다.

어떤 사람들은 검정 색소만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검정색소를 얼마나 생성해 내는가에 따라 짙은 갈색이 포함된 검정머리를 지니게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오로지 붉은 색소나 노랑색소만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발머리나 붉은 머리를 가졌다. 이러한 색소를 생성해내는 능력은 현존하는 색소에 의해 결정이 되며 또한 그 사람의 유전 정보 인자에 의해 나타난다 (<http://www.cyberbeauty.co.kr> 류은주).

3) 눈동자 색의 특성

멜라닌 색소는 피부뿐만 아니라 눈 즉, 홍채에도 있다. 눈의 망막이나 포도막등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는 강한 빛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검은 눈동자의 본체는 각막을 통해 흑색으로 보이는 홍채이다. 중앙에 원형

의 동공이 있고, 이 곳을 통하여 전안방(前眼房)과 후안방이 이어진다. 홍채가 이완하거나 수축함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변하고, 따라서 망막에 달하는 광선의 양이 조절된다. 홍채의 조직은 색소세포가 풍부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색소의 빛깔이나 혈관의 다소에 의하여 홍채의 빛깔이 달라 보인다.

한국인은 갈색이 많고, 백색 인종은 청색이나 회색이 많다. 파란 눈동자는 홍채의 최후층(最後層)을 제외한 부분의 색소세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며, 완전히 색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는 혈관색으로 홍채가 적색으로 보인다(두산세계대백과).

홍채의 색조가 변하는 것은 색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색소의 양이 적거나 많기 때문이다. 홍채가 흑갈색을 띠는 것은 홍채의 앞면 즉, 표층에 많은 멜라닌 색소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부분의 색소가 홍채의 심층에 존재하게 되면 옅은 갈색 내지 녹색, 회색 또는 푸른색을 띠게 된다. 또 보라색 눈동자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혈관 속의 피가 투명하게 비치기 때문이다. 밝은 색조의 눈동자는 일종의 광학적 착시현상으로, 적도가 멀어지고 일조량이 적을수록 밝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는 흑갈색에서 담청갈색 사이의 여러 가지 색상을 보인다. 이렇듯 홍채는 색소의 양과 홍채 내에서의 색소의 위치, 혈관, 광학적 영향 등에 의해 다양한 색을 나타내게 된다(한국색채학회 3, 2000).

4) 한국여성의 피부색에 대한 선행연구

류영미(2000)에 의하면 대개 한국인의 피부색은 먼셀 색상의 10R~10YR의 범의에 속하며, 명도는 5~7.5단계이며, 채도는 2~5정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색상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핑크, 내추럴, 오클 등으로 나누며, 각 그룹마다 명도와 채도에 따라 또 세분하여야 한다. 피부 색상의 구분은 색상으로 회고 검은 피부인가는 명도로 혈색 등은 제도로 구분하여 나타내어 보았다.

선행연구 중 이성낙(1985)등의 “한국 젊은 여성의 피부색의 부위별 차이 및 계절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의 여성 65명을 대상으로 Color and Color Difference Meter를 이용하여 전완 내부측(팔의 안쪽)의 피부색이 가장 밝은 색으로 나타났으며, 헐부(뺨)의 피부색이 가장 높은 적색도를 나타내었으며, 헐부가 전완외,내측보다 항상 높은 적색도를 나타내는 것을 헐부가 모세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부위 모두 봄에 가장 밝은 피부색을 보였으며, 봄과 가을보다는 여름에 높은 적색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내부위 모두에서 5월에 가장 낮은 황색으로 보였고, 가장 뚜렷한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은 전완 외측부분(팔의 바깥쪽)이었다. 따라서 피부색은 연령이나, 지역, 부위별,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변화를 지니고 있다.

이민아(2001)은 성인여성의 피부색을 측색계로 분석하여 L, a, b, H, V, C의 변수를 분석하여 K-평균군집을 통해 YR계열로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전체의 얼굴색 평균은 5.23YR6.49/4.09이며, L(명도)66.56이고, a(적색도)10.53이고, b(황색도)20.67이다. 피부색 평균은 7.31YR6.65/3.56이며, L(명도)68.13이고, a(적색도)9.53이고 b(황색도)20.18이다.

한국인의 피부색 적합한 복장색에 대한 선행 연구로 김지은(1989)은 얼굴 피부색에 맞는 복장색의 선택을 위해 P.Moon과 D.E.Spencer의 색채 조화론을 통해 피부색에 대한 색채 조화의 범위를 연구하였다.

이정옥(1995)은 한국 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 이미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김지은과 최영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으나, 컴퓨터 그래픽의 한계로 5YR7/3의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최영훈(1990)은 고바야시 시꼬가 주장한 한국, 일본인 등의 살색으로 가장 많은 색채가 6.5YR7/3의 색채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어울리고 색은 본인의 의복색과 피부색과의 대비 조화를 잘 살려 피부색과 동떨어져 볼 수 있는 어두운 색, 또는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얼굴을 돋보이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 공업 진흥청의 ‘한국 표준색 표집’에 따르면 붉은 톤(5YR)과 보

통의 톤(6.5YR), 황색의 톤(7.5YR)으로 나누어 피부색에 어울리는 색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연정(1999)의 ‘한국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관한 연구’에서는 화장 후에 바라는 얼굴색에 정도는 흰색>원래얼굴색>검은색>붉은색>노란색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에서 붉거나 노랑 화장색보다는 검은 화장 색 선호도가 좀더 높다. 흰 얼굴을 선호하는 정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모두 높으나, 본인의 얼굴을 가장 흰 편으로 인지한 30대가 선호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모든 지역에서 흰색에 대한 선호정도가 매우 높으며, 노란 얼굴색과 피부색에서 지역간 $P<0.05$ 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나고 있다.

얼굴색, 피부색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희게 인지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검게 인지하는 사람이 가장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후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흰 화장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원래의 얼굴색과 같기를 바라는 정도가 높아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원하고 있었다. 또한, 선호도 조사에서 흰 얼굴과 피부색을 선호하는 정도가 월등하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흰 얼굴색과 피부색, 흰 화장 색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부색은 6YR~7.6YR의 색상과 ,명도 6.5~6.8, 채도2.2~4.8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얼굴색은 2.8YR~7.2YR의 색상과 명도5.9~6.5, 채도3.2~3.9사이에, 화장색은 4YR~4.6YR의 있고 색상과 명도 6.4~6.5, 채도 2.6~3.9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선주(2000)의 선행연구에서는 피부는 신체의 가장 큰 기관이며 신체 외부의 외관이다. 신체의 색과 재질은 의복색과 재질은 지각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하게 보이는 피부색을 갖기 원한다. 피부의 명도가 얼마나 밝은나 또는 어두운나에 관계없이 색상과 채도는 대체로 건강과 연상된다. 빨간 쪽으로 키우는 기본 색상들은 좋은 건강 상태를, 노랑은 비정상적으로 나쁜 건강 상태를 변한다. 채도가 선명할수록 좋은 건강 상태를, 채도가 탁할수록 체질이 약한 또는 민감한 체력, 건강 상태가 좋지 않

은 것으로 표현된다.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 피부색의 기본 색상은 주황색 기미의 빨강에서 주황색기미의 노랑에 이르는 색상범위에 있다.

피부 톤은 흰 피부는 혈색은 없으나 희고 화사해 보이는 피부, 희고 붉은 피부는 희면서 붉은 피부, 노르스름한 피부는 노르스름하고 약간 창백해 보이는 피부, 짙은 황갈색 피부는 전체적으로 검어 보이는 피부로 구분하였다.

피부의 색상 구분은 10.0R을 핑크로 백인에 가까운 핑크피부, 3.0YR을 내츨펑크로 핑크 느낌의 피부, 6.5YR을 크림으로 한국인에 많은 보통 피부, 10.0 YR를 크림으로 황색기미의 피부로 구분하였다.

피부에 명도 구분은 7.5~8.0은 흰 얼굴로, 7.0은 보통얼굴로, 6~5는 검은 얼굴로 구분하였다. 피부의 채도 구분은 2는 맑지 않은 혈색, 3~4는 건강한 색, 4~5는 혈색아 좋은 색으로 구분하였다.

박화순(2000)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퍼스널컬러를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적 퍼스널 컬러의 요소는 피부색, 머리카락 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퍼스널 컬러는 따뜻한 형, 차가운 형, 복합형으로 명명된 세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밝혔다. 그 결과 따뜻한 유형이 제일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성은 복합형, 남성은 차가운 형 순으로 나타났다.

태평양화학 미용 연구실에 자료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피부색은 크게 황색계의 피부와 핑크색계 피부로 나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노르스름한 피부(Olive skin)와 짙은 황갈색 피부(Tawny Skin), 핑크색계는 흰 피부(Ivory)와 희고 붉은 피부(Ruddy Skin)로 많은 수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피부색이 각기 다른 결과를 지니고 있다. 그 요인은 앞서 언급한 피부색 측정에 있어서 피부색의 특성상 색지와 같은 균일한 것이 아닌 재질적인 면에 의해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자외선, 화장품, 피부질환, 혈관, 약물 등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어 광학 측색에 있어 한계점으로 측색한 값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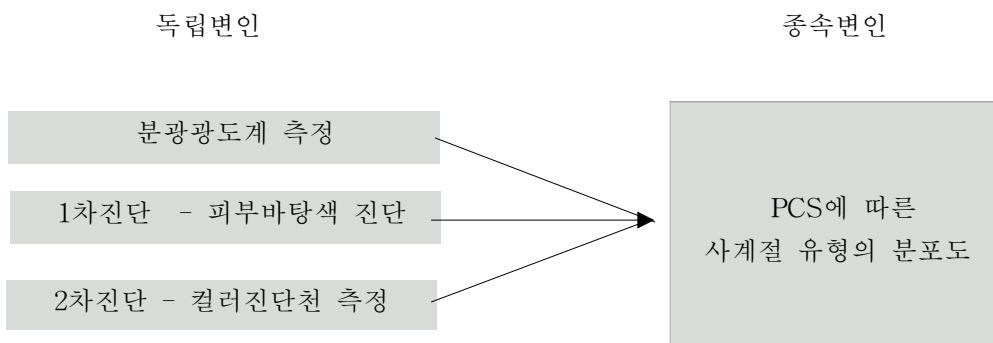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1차 설문조사와 2차 면접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절차에서는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간을 제시하였고, 조사도구로는 1차 설문조사와 2차 면접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피부색의 측정방법 그리고 유형분석에 이용된 측정변수를 제시하였다.

1. 연구문제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패션관련(의상, 메이크업, 헤어)색상에 대한 구매행동과 인식관련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PCS에 따른 유형의 컬러진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PCS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를 밝힌다.
넷째, 유형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그 차이를 밝힌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변인은 [그림 2] 과 같다.



[그림 2] 연구의 변인

2 . 연구대상 및 절차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서울, 충주, 울산지역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여성 343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서울지역 여학생, 충주 지역 여학생과 서울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여성과 울산 지역의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면접조사로 총 343명에게 실시하였다. 실제계측과 설문을 병행하였으므로 설문지 회수율은 면접조사로 인해 100%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출생지, 거주지 분포

	연 령				출 생 지						거 주 지						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서 울 및 경 기도	강 원 도	충 청 도	경 상 도	전 라 도	제 주 도	서 울 및 경 기도	강 원 도	충 청 도	경 상 도	전 라 도	제 주 도	
N	270	61	12	0	158	6	26	129	20	4	229	0	5	106	3	0	343
%	79	17.5	3.5	0	46	1.7	7.6	37.7	5.8	1.2	66.6	0	1.5	31	0.9	0	100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며, 연령은 20대가 270명(79%), 30대가 61명(17.5%), 40대가 12명(3.5%)이었다. 거주지에 있어서는 서울 및 경기도가 229명(66.6%), 경상도가 105명(31%), 충청도가 5명(1.5%), 전라도가 3명(0.9%)으로서 서울 및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출생지에 있어서는 서울 및 경기도가 158명(46%), 경상도가 129명(37.7%), 충

청도가 26명(7.6%),전라도가 20명(5.8%),강원도가 6명(1.7%),제주도가 4명(1.2%)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 졌다.

(1) 도구개발

예비조사(pre-test)와 본 조사에 사용 할 1차 설문조사의 설문문항을 선정하고 2차 면접조사에 사용할 PCS에 따른 사계절 유형의 조사도구인 분광광도계와 컬러진단 프로그램, 유형별 색상을 9가지 부분으로 구분한 진단천을 선정하였다.

2) 예비조사(pre-test)

서울거주 20명의 여성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차 설문조사와 2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3) 본 조사

예비조사(pre-test)결과 이해도 검사에 문제가 없어 본 조사에 들어갔다. 면접조사의 경우는 먼저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피부색을 측정하고 자연광이 비치는 곳에서 조사대상자와 일대일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컬러 진단천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3 .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1) 설문조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은 표준화된 것이 없으므로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에 사용된 문항들의 점수를 합하여 그 변인에 대한 태도로 간주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조사 내용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누었으며 그 내용을 <표 4>로써 정리하였다.

<표 4> 분류내용별 문항 수

	분 류 내 용	총문항
1	색채관련구매행동	7
2	색채인식관련	3
3	의상색상관련	5
4	메이크업색상관련	7
5	헤어색상관련	4
전 체 문 항 수		26

2) 면접조사

PCS 진단과정 기본구조는 본 연구자가 퍼스널컬러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를 위해 측정도구로 1차 진단과 2차 진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기본구조는 [그림 3] 과 같다.

1차 진단에서는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을 각 유형별로 분석한 진단 척도를 가지고 1차 적으로 유형을 분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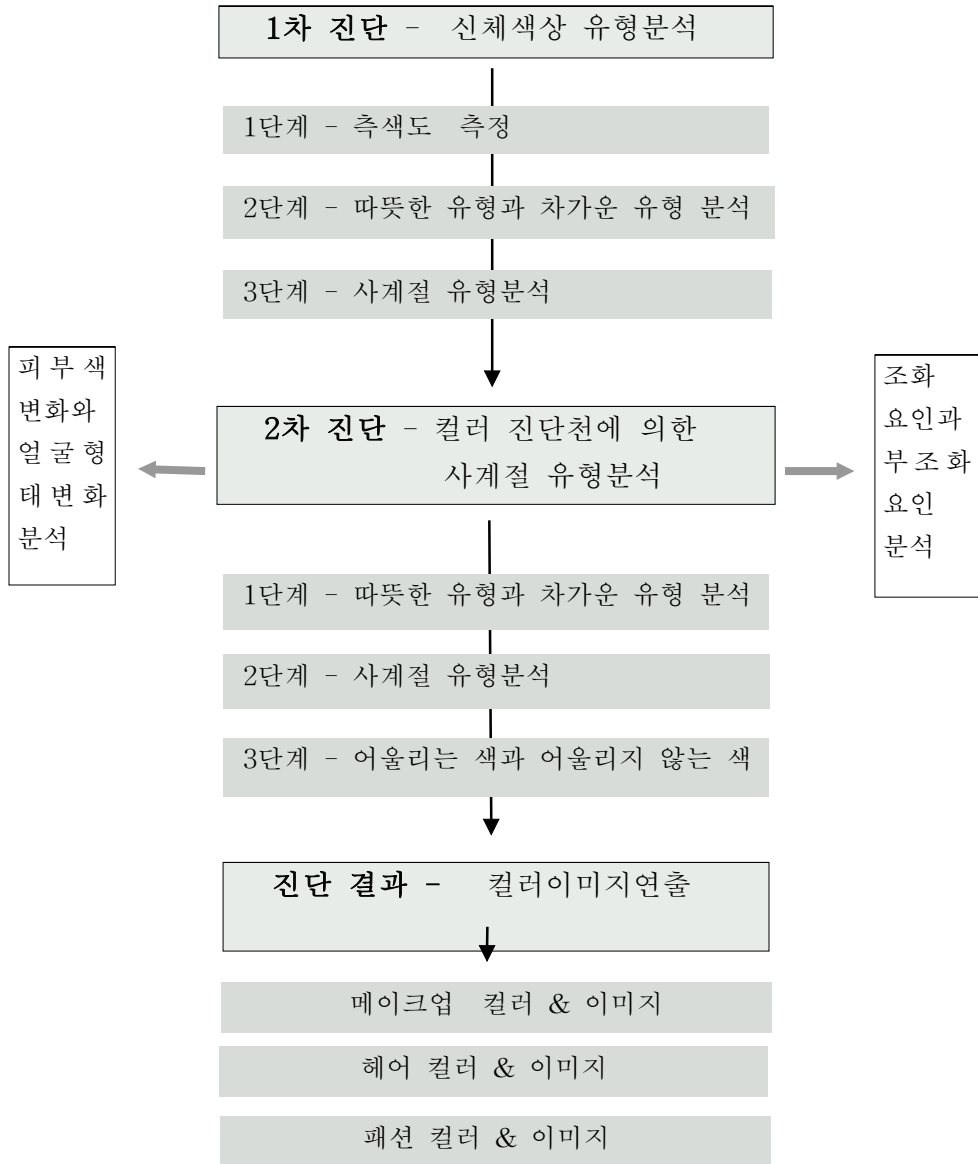
- 1 단계 : 측색기를 통해 적색도와 황색도를 분석하여 따뜻한 유형과 차가운 유형을 분석한다.
- 2 단계 : 뒷머리 두피 색과 팔목안쪽부분을 분석하여 피부색을 판단하고 머리카락 색은 염색이 되지 않은 부분, 눈동자 색은 홍채의 색을 통해 따뜻한 유형과 차가운 유형을 분석한다.
- 3 단계 : 따뜻한 유형과 차가운 유형을 분석한 후 전체적인 신체색상의 조화에서 사계절 유형을 분석한다.

2차 진단에서는 색상별로 유형을 구분한 9가지 PART 컬러 진단천을 통해 피부색의 변화와 얼굴형태변화를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어울리는 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 1 단계 : 1~3 PART 컬러 진단천에서는 따뜻한 유형과 차가운 유형을 구분한다.
- 2 단계 : 4~9 PART 컬러 진단천에서는 사계절유형을 구분한다.
- 3 단계 : 1,2 단계에서 진단한 과정에서 어울리는 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을 선정한다.

진단결과에서는 1차 진단분석과 2차 진단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퍼스널 컬러를 선정하여 메이크업, 헤어, 의상의 컬러이미지연출을 한다.

PCS (Personal Color System) 진단과정



[그림 3] PCS (Personal Color System) 진단 기본구조설계

(1) 퍼스널컬러 진단척도

본 연구에서는 1차 진단 과정에서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의 색상과 명도, 채도의 변화와 신체색상의 톤, 자외선노출에 대한 반응을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① 1차 진단 - 신체색상분석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의 퍼스널컬러 진단척도를 다음<표 5>,<표 6>와 같이 구분하였다.

<표 5> 퍼스널컬러 진단척도 - 피부색

구분	피 부 색
색상	노란색 톤 (노르스름한 기미 Golden undertones / Yellow beige) 갈 색 톤 (갈색 기미 Brown undertones / Olive Beige) 핑크색 톤 (회고 푸르스름한 기미 Pink undertones / Fair Olive) 붉은색 톤 (붉으스름한 기미 Rosy undertones / Rose Beige)
명도	밝은 톤 Light 중간 톤 Medium 어두운 톤 Dark
채도	투명한 피부 - 얇고 윤기 있는 매트한 피부 - 건조하고 불투명한

<표 6> 퍼스널컬러 진단척도 -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 색

구 분	머리카락 색
색상	황갈색 Golden Brown 갈 색 Auburn Brown 회갈색 Gray Brown 검정색 Black
명도	밝은 톤 Light 중간 톤 Medium 어두운 톤 Dark

신체색상(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의 톤은 밝은 톤 Light - 밝은 톤의 조화, 선명한 톤 Bright/ Vivid - 강한 대비의 조화, 부드러운 톤Muted /Soft - 비슷한 톤의 조화, 짙은 톤 Deep - 어두운 톤의 조화로 분류하였고,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는 햇볕에 잘 타지 않은 타입 - 붉어지는 것이 없어지면 다시 원상태(하얗게)로 돌아가는 타입과 햇볕에 잘 타는 타입 - 쉽게 타고 잡티나 기미가 잘 생기며 상처가 났을 때 흔적이 오래가는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② 1차진단 -유형별 신체색상 구분

a. 봄 유형

피부는 노르스름한 피부로 매끄럽고 맑고 투명(신선하고 깨끗하며 가벼운 느낌)하며 피부가 얇기 때문에 얼굴에 주근깨 같은 잡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카락은 대체로 눈동자 색과 비슷한 밝은 갈색으로 윤기 나고 부드러우며 얇은 것이 특징이다.

- . 피부색 - 노르스름한 피부로 대체적으로 밝은 톤의 베이지계열이나 아이보리계열의 피부를 지닌다.
- . 눈동자 색 - 황색 톤에 연한 갈색이나 짙은 갈색

. 머리카락 색 - 황색 톤에 연한 갈색이나 짙은 갈색

b. 여름 유형

피부색은 핑크 빛이 살짝 돌고 피부색이 다소 붉은 피부가 많아 비교적 밝은 피부보다 어두운 피부가 많다. 머리카락은 윤기가 나지 않는 건조한 타입으로 밝은 갈색이나 어두운 회갈색을 많이 띤다. 눈동자도 부드러운 회갈색이어서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 피부색 - 붉으면서 흰빛이 도는 피부로 대체로 중간톤이나 어두운 톤의 피부를 지닌다.

. 눈동자 색 - 회색 톤을 지닌 연한 갈색

. 머리카락 색 - 회색 톤을 지닌 연한 갈색이나 검정색

c. 가을 유형

피부색은 노르스름한 피부에 황색 빛을 가지고 있어 차분한 피부 톤에 짙은 계열의 적갈색과 검은색 머리카락에 짙은 갈색과 검은색 눈동자를 지니고 있어 전체적으로 차분한 이미지를 지닌다.

. 피부색 - 노르스름한 피부에 황갈색 톤을 지닌 피부를 지닌다.

. 눈동자 색 - 적갈색 도는 진한 갈색과 검정색

. 머리카락 색 - 적갈색 도는 진한 갈색과 검정색

d. 겨울 유형

겨울 타입의 이미지는 차갑고 강렬하며 이지적인 느낌을 지니고 있다. 피부는 희고 푸른빛을 지니고 있어 차갑고 창백해 보이며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 색은 짙은 계열로 짙은 회갈색이나 검정색으로 흰 피부와 대조를 이루는 이미지로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지닌 타입이다. 전체적으로 신체색상은 콘트라스트가 강한 편이다.

. 피부색 - 붉으면서 흰빛이 도는 피부로 대체로 밝은 톤에 피부가 주를 이룬다.

. 눈동자 색 - 회색 톤을 지닌 연한 갈색과 검정색

. 머리카락 색 - 회색 톤을 지닌 연한 갈색이나 검정색

③ 2 차 진단 -컬러 진단천에 의한 사계절 유형분석

색상별로 유형을 구분한 9가지 PART의 컬러 진단천을 통해 피부색의 변화와 얼굴형태변화를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피부색 변화인자로는 색상에서 붉은색 감소/증가, 노란색 감소/증가를 구분하고 명도에서는 밝아짐, 어두워짐을 구분하고 채도에는 투명해짐, 칙칙해짐을 구분하였다. 얼굴형태 변화인자로는 입체적과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과 두드러짐, 주름, 그늘이 열어짐과 짙어짐을 구분하였다.

(2) 진단 측정도구설정

본 연구의 PCS(Personal Color system) 진단을 위해 1차 진단과 2차 진단에서 측정할 도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1차 진단

1차 진단에서는 시각효과테스트의 순간시법방법측정인 측정기로 피부색측정을 하여 유형별 피부색의 Lab값과 HVC값을 측정하고 피부바탕색을 육안시법으로 유형별 구분을 한다. 피부색의 측정도구는 분광광도계 CM-508i (Minolta)를 사용하였다. CM-508i는 측정면적이 직경 8mm으로 피부색을 측정하면 색채측정기준은 먼셀값을 기준으로 Lab값, HVC값 등의 물체색의 색좌표 및 색차에 대한 정보가 측정된다.

피부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부위는 자외선이나 피부질환, 화장품 등으로 변화가 심하지 않는 팔목 안쪽부분을 측정하고 육안시법으로는 자연광에서 피부바탕색은 뒷머리 두피 색과 팔 안쪽부분을 분석하여 피부색을 판단하고 머리카락 색은 염색이 되지 않은 부분, 눈동자 색은 홍채의 색을 분석하였다.

피부바탕색 진단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의 변인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1단계 - 신체색상 진단

피부색 특징		얼굴색 톤		머리카락색 톤		눈동자색 톤 c		계절 (유형)	
W 따뜻한 색 Warm	WS 밝고 화사한 투명한 피부 로 볼부분에 연산호빛을 지님.(golden ndertone)	밝은 톤 (Light)	1	황 갈 색	밝은 톤 (Light)	1	밝은 톤 (Light)	1	봄 spring Light /Bright
		중간 톤 (Medium)	2		중간 톤 (Medium)	2	중간 톤 (Medium)	2	
		어두운 톤 (Dark)	3		어두운 톤 (Dark)	3	어두운 톤 (Dark)	3	
	-노르스 름 한 피부톤 yellow tone	WA 황갈색 기미 가 강하며 혈색이 없음 (olive undertone)	밝은 톤 (Light)	1	적 갈 색	밝은 톤 (Light)	1	밝은 톤 (Light)	1
		중간톤 톤 (Medium)	2	중간 톤 (Medium)		2	중간 톤 (Medium)	2	
		어두운 톤 (Dark)	3	어두운 톤 (Dark)		3	어두운 톤 (Dark)	3	
C 차가운 색 Cool	CS 붉은색 기미 를 지니면서 핑크톤의 혈 색을 지님 (Rosy undertone)	밝은 톤 (Light)	1	적 갈 색	밝은 톤 (Light)	1	밝은 톤 (Light)	1	여름 summer Light /Muted
		중간 톤 (Medium)	2		중간 톤 (Medium)	2	중간 톤 (Medium)	2	
		어두운 톤 (Dark)	3		어두운 톤 (Dark)	3	어두운 톤 (Dark)	3	
-푸르스 름 한 피부톤 Blue tone	CW 회고 투명 한피부로 핑 크톤의 혈색 을 지님 (Pink undertone)	밝은 톤 (Light)	1	검 정 색	밝은 톤 (Light)	1	밝은 톤 (Light)	1	겨울 Winter Dee p /Bright
		중간 톤 (Medium)	2		중간 톤 (Medium)	2	중간 톤 (Medium)	2	
		어두운 톤 (Dark)	3		어두운 톤 (Dark)	3	어두운 톤 (Dark)	3	

② 2차 진단

2차 진단에서는 감성효과(미적효과)테스트의 일대비교법으로 견본(측정도구)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PCS 컬러 진단천을 활용하여 유형의 분포와 어울리는 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을 선정하였다.

컬러진단은 사계절유형을 PCS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독일의 Stage Color Cosmetics에서 제작된 PCS 컬러 진단천과 미국의 Donna Fujil Institute에서 제작된 PCS 컬러진단천의 측정도구를 이용해 색상별로 유형을 구분한 9가지 PART 분류하였다.

PCS 컬러 진단천을 유형별 색상을 9가지의 부분으로 <표 8>, <표 9>와 같이 구분하였다. 피부색과 유형별 색상의 조화분석을 변화요인으로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으로 구분하며 변화인자를 피부색변화와 얼굴형태의 변화로 두고 각각 변화요인으로 <표 10> 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컬러 진단천 유형별 색상 - PART 1, 2, 3

	PART 1	PART 2	PART 3
WARM	Gold	Brown	Beige
Munsell	3.0Y8.2/3.2	0.3YR2.6/2.2	7.6YR6/4.4
COOL	Silver	Black	Gray
Munsell	9.4BG8.8/0.1	5.2PB1.6/0.4	7.0PB6.2/10.4

<표 9> 컬러 진단천 유형별 색상 - PART 4, 5, 6, 7, 8, 9

	PART 4 (Blue계열)	PART 5 (Pink계열)	PART 6 (Green계열)	PART 7 (Red-1계열)	PART 8 (Yellow계열)	PART 9 (Red-2계열)
W-S (봄) Munsell	3.9R7.9/2.2	6.5R7.0/8	3.6BG7.5/5	5.7R4.4/14.1	0.3Y7.4/10.9	6.5R6.2/10.4
C-S (여름) Munsell	0.5PB8/3.8	1.4R8.4/4.1	0.2B5.7/4.1	2.7RP3.7/9.8	9.7Y9.2/4	4.9RP5.1/8.6
W-A (가을) Munsell	4.9PB4.7/9.1	5.4RP5.1/14.3	1.8BG3.3/4.4	3.4R3.1/9.4	4.9Y8.6/10.9	6.1R4.2/15.9
C-W (겨울) Munsell	0.4BG3.4/2.5	1.4YP7.9/4.5	6.8GY3.3/2.8	8.7R3.6/9.1	0.3Y8/9.3	0.2R4.0/13.7

<표 10> 2단계 - 피부색과 유형별 색상조화 분석 변화요인

	변화 인자	변 화 요 인				진단
		조화 요인		부조화 요인		
유 형 별 색 상	피 부 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 굴 형 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변화없음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짙어짐	()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4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첫째, 패션(의상, 메이크업, 헤어)색상에 대한 구매행동 및 인식관련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PSC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PSC에 따른 유형별의 피부색을 Lab값과 HVC값의 평균값 과 분포

넷째, PSC에 따른 유형별의 피부색을 Lab값과 HVC값에 대한 유의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군집분석(K- 평균 군집분석)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Lab값과 HVC값의 유형분류의 변수를 판별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패션(메이크업, 헤어, 의상)색채 상품 구매행동

<표 11>에 의하면 패션색채관련 구매행동에 있어서 의상 선택 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디자인(69%), 색상(27%), 소재(4%)이며, 색조화장품 구입 시는 색상(59%), 품질(36%), 가격(5%)이며, 헤어컬러 염색의 경우는 색상(70%), 품질(28%), 가격(2%)순으로 나타났다. 헤어염색과 색조화장품의 경우 색상에 대한 중요도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패션색채관련 상품에 있어서 색채의 중요성에 있어서도 95%가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이에 의상 색채선택의 기준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46%), 좋아하는 색(37%), 소유하고 있는 의상과 어울리는 색(17%)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 색채 선택기준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72%), 좋아하는 색(15%), 유행하는 색(10%), 판매원이 권하는 색(2%)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컬러 선택기준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67%), 좋아하는 색(21%), 판매원이나 헤어디자이너가 권하는 색(7%), 유행하는 색(5%) 순으로 나타났다. 색채선택 기준에 있어서는 의상, 메이크업, 헤어 모두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표 11 > 패션색채상품의 구매행동

(N: 343 , 단위: %)

	의상		메이크업		헤어	
관련 제품 구입시 중요도	디자인	69	색 상	59	색 상	70
	색 상	27	품 질	36	품 질	28
	소 재	4	가 격	5	가 격	2
색채 선택 기준	자신에게 어울리는색	46	자신에게 어울리는색	72	자신에게 어울리는색	67
	좋아하는 색	37	좋아하는 색	15	좋아하는 색	21
	소유하고 있는 의상과 어울리는 색	17	판매원이 권하는 색	10	판매원이나 헤어디자 이너가 권하는 색	7
	유행하는 색	0	유행하는 색	2	유행하는 색	5

2 . 패션색채

색채에 대한 관심도는 아주 관심 있다(39%), 관심 있다(44%), 보통이다(16%)이며, 자신의 이미지에 색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주 크다(34%), 크다(52%), 보통이다(13%)로 나타났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1%), 그렇지 않다(27%), 그렇다(24%), 아주 그렇다(4.4%), 전혀 그렇지 않다(1.7%)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색채의 관심도나 영향력은 높게 나타났지만 그에 반해 자신이 좋아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의 일치도는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 의상색상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상색상에 대해 80%이상이 알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상색상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피부색과의 조화(47%), 자신의 스타일과의 조화(29%), 주변의 반응(8.2%)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의상 색상계열은 베이지계열(28%),빨강계열(21%),검정계열(20%),갈색계열(19%),파랑계열(19%),청록계열(11%),노랑계열(8.7%),자주계열(7%),연두계열(6.4%),흰색계열(6.1%),녹색계열(5.2%),보라계열(4.4%),주황계열(2.6%)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상색의 밝기(명도)정도는 밝은색계열(43%),중간색계열(24%), 어두운색계열(13%)로 나타났다.

2) 메이크업색상

조사 대상 중 78%가 메이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을 알고 있는가 예는 59%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을 알고 있다면 그 판단기준으로는 피부색과의 조화(44%),의상과의 조화(17%),주변의 반응(4.7%)로 나타났다.

다음은 평소 사용하는 메이크업 색상의 기호도로 파운데이션(투웨이 케익)의 색상으로는 밝고 아이보리 빛이 도는 베이지(밝은색)(33%),밝고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밝은색)(9.9%),핑크빛이 도는 내추럴한 베이지(중간색)(7.6%),산호빛이 도는 내추럴한 베이지(중간색)(5.2%), 황색 톤의 올리브 베이지(짙은색)(4.4%)로 전체적으로 밝은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어두운 피부보다 밝은 피부 톤이 많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밝은 피부 톤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비교적 자신의 피부보다 밝게 표현하고자하는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파우더의 경우 베이지색(30%),투명(색상이 없는)한 색(25%),연보라색(7.9%),핑크색(5.2%)으로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섀도우 색상은 핑크계열(26%),블루계열(14%),그린계열(12%),퍼플계열(7.6%),오렌지계열(7%), 브라운계열(6.1%),와인계열(2.6%)로 나타났다. 립스틱색상은 핑크계열(29%),브라운계열(14%),오렌지계열(12%),베이지계열(9%),레드계열(7%),와인계열(3.5%)로 전체적인 메이크업 색상은 21세기 유행경향인 내추럴 메이크업패턴으로 피부톤은 자연스러우면서 색상은 파스텔톤에 밝은 색상과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헤어색상

조사대상 중 74%로 염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색상을 알고 있는가 예는 56%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색상의 판단기준은 피부색과의 조화(34%), 헤어스타일과의 조화(17%), 주변의 반응(12%)로 나타났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헤어색상으로는 브라운계열(36%), 검정계열(17%), 오렌지계열(13%), 블루계열(3.5%), 와인계열(2.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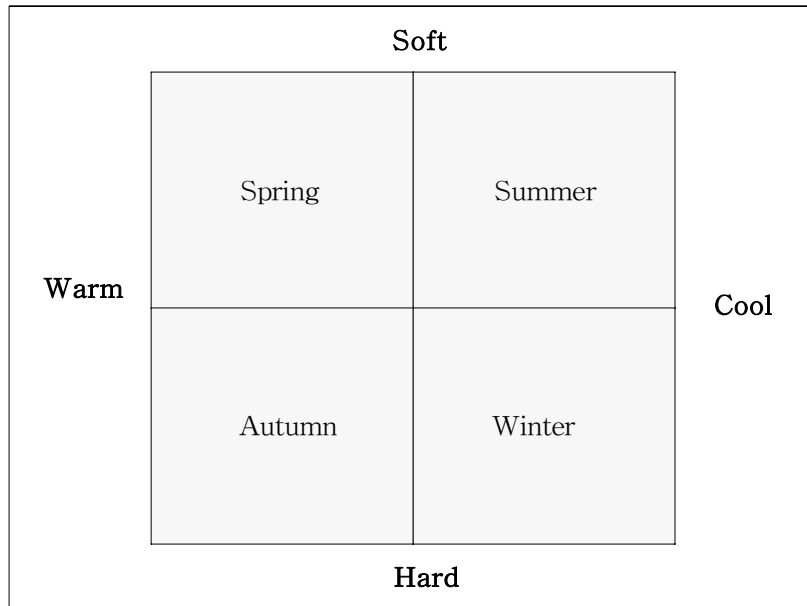
3 . PSC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 및 요인

1) PSC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

(1) 유형설정

유형의 설정은 PCS에 따른 사계절 유형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컬러이미지스케일의 의미 분별법에 의거하여 설정하였다.

제 1 요인의 경우는 색상((HUE)에 따른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의 이미지유형으로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로 구성되고, 제 2 요인의 경우는 톤(Tone)에 따른 소프트(Soft)와 하드(Hard)의 이미지유형으로 봄와 여름, 가을과 겨울로 구성하여 4가지의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 컬러이미지 스케일에 따른 유형이미지

2) 유형의 평가척도 및 결과

유형을 분류하는 평가방법으로 각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피부바탕색 즉,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을 기준으로 하여 각 유형별 색채이미지 속성에 따라 구분한다.

첫째, 피부바탕색을 기준으로 제 1요인인 색상(HUE)에서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을 구분하고 따뜻함(Warm)에는 봄과 가을유형, 차가움(Cool)에는 여름과 겨울유형이다.

둘째, 제 2 요인인 톤(TONE)에서 소프트(Soft)와 하드(Hard)구분하고 소프트(Soft)에는 봄과 여름유형, 하드(Hard)에는 가을과 겨울유형이다.

유형의 평가척도는 1차 진단과 2차 진단의 결과를 통해 유형의 분포도를 측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진단 결과 - 신체색상 분석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개인의 피부바탕색을 분석하여 1차 적으로 진단을 한다. 그 결과는 <표 12>, <표 13>와 같다.

<표 12> 1차 진단 결과 - 신체색상 1 (N: 343, 단위: %)

유형별 신체색상 분석			여름	가을	겨울
피부 바탕색의 톤	WS	밝은 톤 Light/Bright	5.8	6	.
	CS	부드러운 톤 Light /Muted	53	6	11
	WA	깊은 톤 Deep /Muted	33	86	26
	CW	선명한 톤 Deep /Bright	7.6	3	63
자외선의 반응	W	햇빛에 잘 타는 타입	23	81	11
	C	햇빛에 잘 타지 않는 타입	76	19	69

유형을 결정하는 변수로 분류된 피부바탕색의 톤간의 빈도를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난 톤을 보면 여름의 경우 부드러운 톤(Light /Muted)이 53%로, 가을의 경우 깊은 톤(Deep /Muted)이 86%, 겨울의 경우 선명한 톤(Deep /Bright)이 63%로 나타났다. 즉, 유형별 피부바탕색의 톤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자외선에 대한 반응을 보면 차가운 집단보다 따뜻한 집단이 햇빛에 잘 타는 타입으로 나타났다.

<표 13> 1차 진단 결과 - 신체색상 2 (N:343 , 단위 : %)

피부바탕색	유형별요인	여름	가을	겨울
피부색 (색상)	노르스름한 기미	6	56	10
	갈색 기미	20	44	·
	회고 푸른 기미	18	·	50
	붉으스름한 기미	56	·	40
피부 톤 (명도)	밝은 톤	25	32	42
	중간 톤	37	43	47
	어두운 톤	38	25	11
머리카락 색 (색상)	황갈색	1.2	33	·
	적갈색	1.8	25	·
	회갈색	50	·	47
	검정색	47	42	53
머리카락 톤 (명도)	밝은 톤	3	·	·
	중간 톤	33	25	42
	어두운 톤	64	75	58
눈동자 색 (색상)	황갈색	5.8	26	16
	적갈색	17	49	15
	회갈색	67	·	58
	검정색	10	25	11
눈동자 톤 (명도)	밝은 톤	4	·	16
	중간 톤	31	17	37
	어두운 톤	65	83	47

피부색 색상에서 유형별 요인을 보면 여름은 붉으스름한 기미, 가을은 노르스름한 기미와 갈색 기미, 겨울은 회고 푸른 기미와 붉으스름한 기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부 톤을 보면 여름은 중간 톤과 어두운 톤, 가을은 중간 톤, 겨울은 밝은 톤과 중간 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머리카락색상의 경우는 여름은 회갈색과 검정색, 가을은 검정색, 겨울은 검

정색과 회갈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머리카락 톤의 경우 모든 유형이 어두운 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가을이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눈동자 색의 경우 여름은 회갈색, 가을은 적갈색, 겨울은 회갈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눈동자 톤의 경우 모든 유형이 어두운 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2차 진단 및 결과 - 유형별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 빈도분석

유형별로 분류된 색상별 컬러 진단천을 9PART로 구분하였다. 1,2,3 PART는 제 1 요인인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유형을 측정하고,4,5,6,7.

8,9 PART부분은 제 2 요인의 소프트(Soft)와 하드(Hard) 즉, 사계절 유형을 측정하는 동시에 어울리는 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을 진단한다. 각 PART마다 유형별 색채척도방법은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을 피부색변화와 얼굴형태변화인자를 측정하여 구분한다. 분류된 유형에 대한 조화요인과 부조화 요인에 대한 변화 인자의 요인과 빈도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유형별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을 보면 여름의 경우 조화요인은 피부색의 변화에서는 밝아짐(명도)(47%),투명해짐(채도)(38%),붉은색 감소(색상)(14%)로 나타났으며, 얼굴형태변화에서는 입체적(44%), 주름, 그늘이 없어짐(40%)로 나타났다. 여름의 경우 조화요인으로서는 피부색은 밝고 투명한 피부와 얼굴형태변화는 얼굴이 작아지면서 입체적으로 변화하면서 주름과 그늘이 없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에 부조화요인의 경우 피부색의 변화에서는 칙칙해짐(채도)(53%), 붉은색 증가(색상)(27%), 어두워짐(명도)(18%)으로 나타났으며, 얼굴형태변화에서는 주름, 그늘이 짙어짐(59%), 평면적(16%),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13%),잡티, 기미,여드름 짙어짐(12%)로 나타났다.

<표 14> 유형별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 빈도분석 (단위: %)

변화 요인	변 화 인 자		여 름	가 을	겨 울
조 화 요 인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14	4	26
		노란색 감소	1	21	0
		(명도) 밝아짐	47	56	27
		(채도) 투명해짐	38	19	47
	얼굴 형태 변화	입체적	44	29	36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8	12	10
		잡티,기미,여드름 희미해짐	8	19	10
		주름,그늘이 없어짐	40	40	44
부 조 화 요 인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증가	27	2	31
		노란색 증가	2	12	0
		(명도) 어두워짐	18	17	15
		(채도) 칙칙해짐	53	69	54
	얼굴 형태 변화	평면적	16	11	25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13	18	18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12	19	8
		주름,그늘이 짙어짐	59	52	49

여름의 경우 부조화요인으로 칙칙해지거나 붉은색이 증가하는 피부색과 얼굴형태는 평면적으로 커지며 주름이나 그늘이 짙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가을의 경우 조화요인은 피부색의 변화에서는 밝아짐(명도)(56%), 노란색감소(색상)(21%), 투명해짐(채도)(19%), 붉은색 감소(색상)(4.5%)로 나타났으며,얼굴형태변화에서는주름,그늘이없어짐(40%),입체적(29%), 잡티,기미,여드름이 희미해짐(19%),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12%)로 나타났다. 가을의 경우 조화요인으로 피부색은 밝고 투명하고 노란색이 감소된 피부와 얼굴형태

변화는 주름과 그늘이 열어지며 얼굴이 입체적이고 잡티, 기미, 여드름이 희미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에 부조화요인의 경우 피부색의 변화에서는 칙칙해짐(채도)(69%),어두워짐(명도)(17%),노란색 증가(색상)(12%)로 나타났으며, 얼굴형태변화에서는 주름, 그늘이 짙어짐(52%), 잡티, 기미, 여드름 짙어짐(19%),얼굴의 각이 두드러짐(18%),평면적(11%),로 나타났다.

가을의 경우 부조화요인으로서는 칙칙해지거나 노란색이 증가하는 피부색과 얼굴형태는 주름이나 그늘이 짙어지며 잡티나 기미, 여드름 짙어지고 얼굴의 각이 두드러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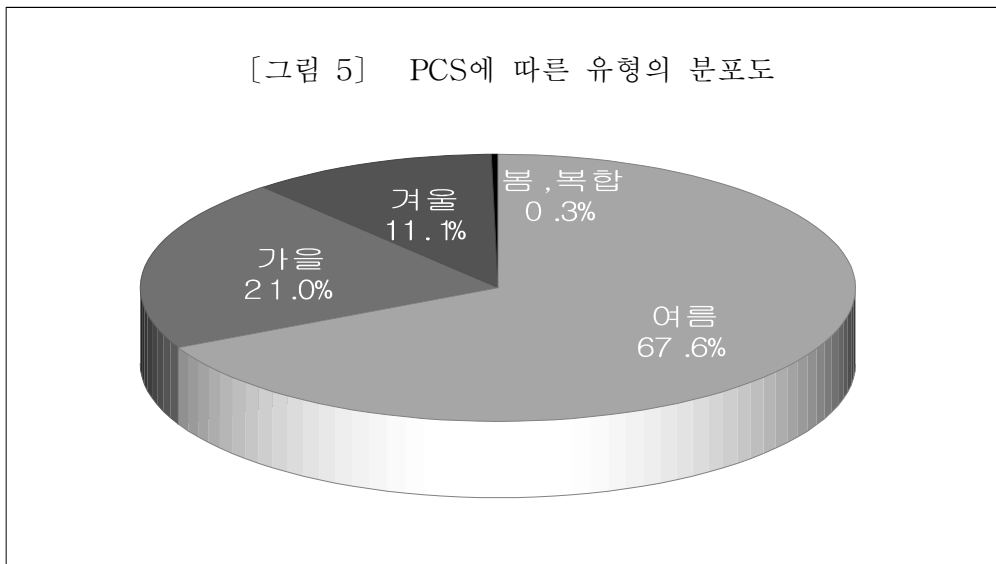
겨울의 경우 조화요인은 피부색의 변화에서는 투명해짐(채도)(47%),밝아짐(명도)(27%), 붉은색 감소(색상)(26%)로 나타났으며, 얼굴형태변화에서는 주름, 그늘이 열어짐(44%),입체적(36%),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10%),잡티, 기미, 여드름 희미해짐(10%)로 나타났다. 겨울의 경우 조화요인으로서는 피부색은 밝고 투명한 피부와 얼굴형태변화는 얼굴이 작아지면서 입체적으로 변화하면서 주름과 그늘이 열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에 부조화요인의 경우 피부색의 변화에서는 칙칙해짐(채도)(54%), 붉은색 증가(색상)(31%),어두워짐(명도)(15%)으로 나타났으며, 얼굴형태변화에서는 주름, 그늘이 짙어짐(49%), 평면적(25%),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18%), 잡티, 기미,여드름 짙어짐(8%)으로 나타났다.

겨울의 경우 부조화요인으로서는 칙칙해지거나 붉은 색이 증가하는 피부색과 얼굴형태는 평면적으로 커지며 주름이나 그늘이 짙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화요인의 경우 피부색이 밝고 투명해지면서 붉은색과 노란색이 감소되며 얼굴형태의 경우는 입체적이면서 주름이나 그늘, 각이 희미해지는 변화요인으로 단점이 보완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부조화요인으로서는 피부색이 칙칙해지면서 어두워지고 붉은색과 노란색이 증가하며 얼굴형태의 변화는 주름, 그늘, 잡티, 여드름이 짙어지면서 얼굴이 평면적이며 각이 두드러지는 변화요인으로 단점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3) 유형의 분포도

1차 진단과 2차 진단을 통하여 유형의 분포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3명 중 여름유형이 67.6%, 가을 21%, 겨울 11.1%를 차지해 여름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을유형, 겨울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봄 유형, 복합1(봄&여름),복합2(봄&가을)유형의 경우는 빈도가 극히 미비하기에 유형분석에 있어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따뜻한 유형(봄과 가을)은 21.3%이며 차가운 유형(여름과 겨울)은 78.7%로 차가운 유형이 더 많이 분포되었다.

한국인의 피부바탕색과 그에 따른 퍼스널컬러색상의 유형은 제 1요인인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에서는 차가운 요인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제 2요인인 톤(TONE)에서 소프트(Soft)와 하드(Hard)에서는 소프트한 요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4 . 유형별 Lab값과 HVC값의 평균값과 분포

본 연구에서는 피부색 측정기준은 먼셀값을 기초로 한 색상(H),명도(V),채도(C)와 L*a*b*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부위는 얼굴 색의 경우 자외선이나 화장품, 피부질환 등 외부자극으로 인해 붉거나 변화가 많아 팔 안쪽으로 비교적 피부색의 변화가 적은 부위를 측정하였다.

1) 따뜻한 집단과 차가운 집단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따뜻한 집단과 차가운 집단을 비교했을 때 L(밝기)평균은 비슷한 밝기로 나타났고 a(적색도)평균은 따뜻한 집단은 5.43이고, 차가운 집단은 5.82로 평균값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차가운 집단의 경우 a(적색도)값이 낮을 경우 b(황색도)값이 낮게 나타났다. b(황색도)평균은 따뜻한 집단은 18.66이고, 차가운 집단은 15.98로 따뜻한 집단이 차가운 집단보다 노랗게 나타났다.

색상(H),명도(V),채도(C)평균은 따뜻함(Warm)유형이 8.8YR6.6/3이고, 차가움(Cool)유형은 7.7YR6.5/2.7로 낮다. HVC값에서는 H(색상)값이 YR값이 높을수록 따뜻함(Warm)유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따뜻한 유형은 노르스름한 기미가 강하고 차가운 유형은 붉은 기미가 강하게 나타났다.

<표 15> 따뜻한 집단과 차가운 집단의 평균,최대값,최소값
N = 341(YR계열)

유형	Variable	Mean	Maximun	Minimum
따뜻함(Warm)	L	67.72	71.54	64.68
	a	5.43	6.68	2.03
	b	18.66	16.12	21.77
	H	8.8YR	9.9YR	7.1YR
	V	6.6	7	6.4
	C	3.0	2.6	3.6
차가움(Cool)	L	67.08	71.74	62.27
	a	5.82	9.01	1.52
	b	15.98	10.79	19.75
	H	7.7YR	9.7YR	5.2YR
	V	6.5	6.2	7.1
	C	2.7	1.7	3.7

2) 유형별의 Lab값과 HVC값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다음은 343명중 봄, 복합1(봄&여름),복합2(봄&가을)에 해당하는 대상이 7명으로 유형의 분석에서 제외하고 여름, 가을, 겨울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표 16 > 유형별의 Lab값과 HVC값의 평균,최대값,최소값

유형	Variable	Mean	Maximun	Minimum
여름 (Sunmmer)	L	66.94	62.27	70.88
	a	5.9154	3.29	9.01
	b	15.96	10.79	19.75
	H	7.6YR	5.6YR	9.7YR
	V	6.5	6.2	7
	C	2.7	1.7	3.7
가을 (Autumn)	L	67.83	64.68	71.54
	a	5.25	2.03	6.68
	b	18.73	16.12	21.77
	H	8.8YR	7.1YR	9.9YR
	V	6.6	6.4	7.1
	C	3	2.6	3.6
겨울 (Winter)	L	68	62.93	71.74
	a	5.27	1.52	7.24
	b	16.08	14.1	17.48
	H	8.0YR	5.2YR	9.6YR
	V	6.6	6.2	7.1
	C	2.7	2.1	3.1

Lab값에서 L(밝기)평균은 겨울68 > 가을67.83 > 여름66.94로 겨울이 가장 밝게 나타났으며 a(적색도)평균은 여름5.91 > 겨울5.27 > 가을 5.26으로 겨울과 가을은 비슷한 적색도를 지니고 있고 그에 비해 여름은 붉게 나타났다. b(황색도)평균은 가을18.73 > 겨울 16.08 > 여름 15.96으로 가을이 가장 노랗게 나타났다.

HVC값에서 H(색상)의 평균은 가을8.8YR > 겨울8.0YR > 여름7.6YR로 가을이 가장 노랗게 나타났다. V(명도)는 모두 비슷한 밝기로 나타났다. C(채도)는 가을3 > 여름2.7=겨울2.7로 가을이 채도가 높게 나타났다.

5 . 군집분석(K- 평균 군집분석)에 의한 유형별 Lab값과 HVC값

유형별 Lab값과 HVC값에 대한 유의한 차이의 요인분석을 위해 군집분석의 방법으로 K-평균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로 유사한 피부색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43명의 피부색측정값을 유사한 피부색을 갖는 3개의 군집으로 Lab값과 HVC값의 6개의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변수들은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3군집의 피부색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군집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여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변수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분류된 3개의 군집별 평균이다.

< 표 17 > 분류된 3개의 군집의 Lab값과 HVC값

Variable	1	2	3
L	68.5165	65.4106	68.7013
a	5.2337	6.5570	4.9084
b	18.0831	16.8852	14.8254
H	8.8YR	7.3YR	8.2YR
V	6.7	6.4	6.8
C	2.9	3.0	2.5

분류된 3개의 군집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L(밝기)평균은 1군집이 68.51이고, 2군집이 65.41이며, 3군집이 68.7로 나타나 1군집과 3군집이 비슷하며 2군집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타났다. a(적색도)평균의 경우 1군집이 5.23이며, 2군집이 6.55이고, 3군집이 4.9로 2군집이 상대적으로 피부색이 붉게 나타났다. b(황색도)평균의 경우 1군집이 18.08이고, 2군집은 16.88이고, 3군집은 4.9로 1군집이 상대적으로 피부색이 노랗게 나타났다.

HVC의 평균값은 1군집이 8.8YR6.7/2.9이고, 2군집이 7.3YR6.4/3이며, 3군집이 8.2YR6.8/2.5로 나타나 1군집이 상대적으로 Y계열에 가깝게 나타났고, 2군집이 R계열에 가깝게 나타나 1군집의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노랗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2군집은 붉게 나타났다.

<표 18> 피부측정값에 따른 분류집단

					전체
		1	2	3	
유형	봄	1(50%)	·	1(50%)	2(100%)
	여름	27(12%)	117(52%)	82(36%)	226(100%)
	가을	56(78%)	15(15%)	1(1%)	72(100%)
	겨울	7(18%)	12(32%)	19(50%)	38(100%)
	봄+여름혼합	2(100%)	·	·	2(100%)
	봄+가을 혼합	·	3(100%)	·	3(100%)
전체		93(27%)	147(43%)	103(30%)	343(100%)

피부측정값에 따른 분류집단을 보면 전체 343명중 1군집은 93(27%)명, 2군집은 147(43%)명, 3군집은 103명(30%), 2군집이 가장 많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여름은 2집단, 가을은 1집단, 겨울은 3집단에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다.

1) 따뜻한 집단과 차가운 집단에 대한 3개 군집의 Lab값과 HVC값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유형별로 보면 따뜻함(Warm)유형은 1집단(74%)이, 차가움(Cool)유형은 2집단(49%)과 3집단(38%)에 많은 분포를 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여름은 2집단(52%), 가을은 1집단(78%), 겨울은 3집단(50%)에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다.

343명중 따뜻함(Warm)유형에 속하는 77명의 군집별 빈도는 1군집이 57(74%)이고, 2군집은 18(23.4%)이며, 3군집은 2(2.6%)로 나타났다. 반면에 264명은 차가움(Cool)유형에 속하며 군집별 빈도는 1군집은 34(13%)이고, 2

군집은 129(49%)이며, 3군집은 101(38%)로 나타났다.

두 유형의 군집별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따뜻함(Warm)유형은 차가움(Cool)유형에 비해 피부색이 밝으며 붉은 색이 적고 노랗게 나타났다. 반면에 차가움(Cool)유형은 따뜻함(Warm)유형에 비해 피부색은 약간 어두우며 노란색이 적으며 붉게 나타났다.

두 유형간의 평균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별 피부색을 결정하는 변수는 Lab값 중 b(황색도)의 변수에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유형에 대한 3개 군집의 빈도

유형	군집 Variable	1	2	3
따뜻함 (Warm)	L	68.5165	65.4106	68.7013
	a	5.2337	6.5570	4.9084
	b	18.0831	16.8852	14.8254
	H	8.8	7.3	8.2
	V	6.7	6.4	6.8
	C	2.9	3.0	2.5
	N = 77	57(74%)	18(23.4%)	2(2.6%)
차가움 (Cool)	L	68.5165	65.4106	68.7013
	a	5.2337	6.5570	4.9084
	b	18.0831	16.8852	14.8254
	H	8.8	7.3	8.2
	V	6.7	6.4	6.8
	C	2.9	3.0	2.5
	N = 264	34(13%)	129(49%)	101(38%)

6 .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에 의한 Lab값과 HVC값의 유형분류의 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과 같이 독립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려는 상황에서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다시 말해 이는 한 대상의 독립변수의 값을 통해 이 분화된 집단 중 어느 특성을 가진 집단에 속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분석 방법인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판별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 가정이 요구되며 또한 판별분석에 요구되는 가정이 만족된 경우에도 여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분석방법이므로 좀더 넓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판별분석과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집단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에 어느 한 집단에 속하느냐를 독립변수를 통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듯한 집단과 차가운 집단을 잘 구별하는 변수를 찾아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단계 선택법을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20>는 단계적 선택법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0> 단계 선택 법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분석	원천	회귀계수	S.E	Wald	자유도	Exp(B)	χ^2	R^2
1단계	b	-.977	.119	67.61***	1	.377	126.11***	.466
	상 수	17.975	2.071	75.31***	1	6402851		
2단계	a	1.445	.223	41.87***	1	4.241	189.83***	.643
	b	-1.673	.222	56.62***	1	.188		
	상 수	21.638	3.102	48.66***	1	2495217704		

*** p < .00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 1 단계에서 b 변수가 유의하게 차가운 피부색 집단과 따뜻한 피부색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로 채택이 되었다. 이 변수와 상수가 들어간 모형이 이 차가운 색 피부 집단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모델인가를 검증한 χ^2 값이 유의 수준 0.001에서 유의하게 상수만 들어간 모델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상수만 들어간 모델과 달리 차가운 색 피부 집단과 따뜻한 집단을 구별함을 나타낸다. b의 회귀계수는 -.977로 이 값이 증가될수록 차가운 피부색에 속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따뜻한 피부색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말한다.

<표 21> 제 1 단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식에 의한 분류 결과

		예측집단		인원	분류 정확 (%)	전체 적중률 (%)
		따뜻한 집단	차가운 집단			
관 측 집 단	따뜻한 집단	34 (43%)	45 (57%)	79	43.0	81.0
	차가운 집단	20 (7.6%)	244 (92.4%)	264	92.4	

1 단계에서 피부색을 회귀식에 의해 판단한 결과와 실제 관측된 집단과의 일치 정도를 <표 20>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총 연구 대상자 343명 중 로지스틱 회귀식에 의해 판별된 소속집단이 원래 관측된 집단과 일치되는 연구 대상자의 백분율인 분류 적중률은 81%를 보이고 있다. 분류 정확도를 보았을 때, 차가운 집단은 92.4%가 정확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따뜻한 집단은 43%만이 b 변인만이 모델에 들어간 로지스틱 회귀식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이는 우연에 의해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50%인 것을 감안할 때 낮은 것으로 이 로지스틱 회귀식이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단계에서 a, b 변수가 유의하게 차가운 피부색집단과 따뜻한 피부색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로 채택이 되었다. 이 변수와 상수가 들어간 모형이 이 차가운 색 피부집단과 따뜻한 집단을 구별함을 나타낸다. a 의 회계계수는 1.445로 이 값이 증가될수록 따뜻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차가운 피부색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말한다. 반면에 b 의 회계계수가 -1.673으로 이 값이 증가될수록 차가운 피부색에 속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따뜻한 피부색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말한다.

< 표 22 > 제 2단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식에 의한 분류 결과

		예측집단		인원	분 류 정 확 (%)	전 체 적중률 (%)
		따뜻한 집단	차가운 집단			
관 측 집 단	따뜻한 집단	48(60.8%)	31(39.2%)	79	60.8	88.6
	차가운 집단	256(97%)	8(3%)	264	97	

2 단계에서 피부색을 회귀식에 의해 판단한 결과와 실제 관측된 집단과의 일치 정도를 <표 20>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총 연구 참여자 343명 중 로지스틱 회귀식에 의해 판별된 소속집단이 원래 관측된 집단과 일치되는 연구 대상자의 백분율인 분류 적중률은 88.6%를 보이고 있다. 분류 정확도를 보았을 때, 차가운 집단은 97%가 정확하게 분류되고 따뜻한 집단은 60.8%로 a, b변인이 모델에 들어간 로지스틱 회귀식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그 결과 1 단계의 b 변인만이 모델에 들어간 로지스틱 회귀식에 의해 분류하는 것보다 2 단계의 a, b 변인이 모델에 들어간 로지스틱 회귀식에 의해 분류된 것이 더욱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의 결과를 보면 지역(출생지)별로 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쪽지역은 남쪽지역에 비해 비교적 차가운 유형이 59.2%로 더 많이 분포되고 남쪽지역은 북쪽지역에 비해 비교적 따뜻한 유형이 56.9%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 지역(출생지)별로 유형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후속연구에서 지역별 유형의 분포를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V .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퍼스널 컬러시스템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퍼스널 컬러 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고, 유형분류를 위한 컬러진단 측정도구를 개발하며 유형분류의 변인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신체색상에 따른 컬러이미지 연출로 자신에게 맞는 색을 활용하므로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 메이크업, 헤어, 의상 등 패션관련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충주, 울산지역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여성 343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와 2차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는 색채관련구매행동, 색채인식관련, 의상색상관련, 메이크업 색상관련, 헤어색상관련에 관한 설문으로 빈도분석으로 분포도를 측정하였다.

2차 면접조사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피부색측정과 더불어 컬러 진단천을 이용해 신체색상과의 조화요인을 분석하는 측정방법으로 1단계에서는 육안시법과 분광광도계 CM-508i(Minolta)로 자외선이나 피부질환, 화장품등으로 변화가 심하지 않는 팔목 안쪽(상완 삼두근)부분을 측정하여 L, a, b, H, V, C의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변수들은 유형별의 피부색을 Lab값과 HVC값의 평균값과 분포와 유형별의 피부색을 Lab값과 HVC값에 대한 유의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군집분석(K-평균 군집분석)를 실시하였고,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판별분석을 하였다.

2 단계에서는 독일의 Stage Color Cosmetics에서 제작된 PCS 컬러 진단천과 미국의 Donna Fujil Institute에서 제작된 PCS 컬러 진단천을 9가지 PART로 분류하여 피부색변화와 얼굴형태의 변화를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으로 분석하여 빈도분포,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차 면접조사결과에서 유형의 분포도에서 343명 중 여름유형이 67.6%,가을 21%, 겨울 11.1%를 차지해 여름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따뜻한 유형(봄과 가을)은 21.3%이며 차가운 유형(여름과 겨울)은 78.7%로 차가운 유형이 더 많이 분포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색채관련 구매행동에 있어서 의상은 디자인, 색조화장품은 색상, 헤어컬러 염색의 경우는 색상이 각각 가장 높게 고려하여 헤어염색과 색조화장품의 경우 의상 색에 비해 색상에 대한 중요도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패션색채관련 상품에 있어서 색채의 중요성에 있어서도 대부분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색채선택 기준에 있어서는 의상, 메이크업, 헤어 모두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둘째, 패션색채 인식관련에서는 색채의 관심도나 영향력은 높게 나타났지만 그에 반해 자신이 좋아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의 일치도는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의상, 메이크업, 헤어색상에 관련된 경향은 다음과 같다.

1) 의상색상 관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상 색상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상 색상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피부색과의 조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의상 색상계열은 베이지계열,빨강계열,검정계열,갈색계열,파랑계열

열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상색의 밝기(명도)정도는 밝은 색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메이크업색상 관련에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을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는 의상색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을 알고 있다면 그 판단기준으로는 피부색과의 조화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메이크업 색상의 기호도로 파운데이션(투웨이케익)의 색상으로는 밝고 아이보리 빛이 도는 베이지(밝은 색)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어두운 피부보다 밝은 피부 톤이 많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밝은 피부 톤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비교적 자신의 피부보다 밝게 표현하고자하는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본다. 파우더의 경우 베이지색, 투명(색상이 없는)한 색, 아이섀도우 색상은 핑크계열, 블루계열, 립스틱색상은 핑크계열, 브라운계열이 높은 기호도를 나타났다. 전체적인 메이크업 색상은 21세기 유행경향인 내츄럴 메이크업패턴으로 피부 톤은 자연스러우면서 색상은 파스텔 톤에 밝은 색상과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헤어색상 관련에서는 조사대상 중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색상을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서는 의상색과 메이크업색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 색상의 판단기준은 피부색과의 조화로 나타났으며 평소 자주 사용하는 헤어색상으로는 브라운계열, 검정계열로 비교적 제안된 색상에서 명도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적으로 다양한 색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

셋째, 유형을 결정하는 변수로 분류된 피부바탕색의 톤간의 빈도를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난 톤을 보면 여름의 경우 부드러운 톤(Light /Muted)이, 가을의 경우 짙은 톤(Deep /Muted),겨울의 경우 선명한 톤(Deep /Bright)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유형별 피부바탕색의 톤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자외선에 대한 반응을 보면 차가운 집단보다 따뜻한 집단이 햇빛에 잘 타는 타입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의 유형별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1) 피부색에서 유형별 요인을 보면 여름은 붉으스름한 기미, 가을은 노르스름한 기미와 갈색 기미, 겨울은 희고 푸른 기미와 붉으스름한 기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부 톤을 보면 여름은 중간 톤과 어두운 톤, 가을은 중간 톤, 겨울은 밝은 톤과 중간 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머리카락 색의 경우는 여름은 회갈색과 검정색, 가을은 검정색, 겨울은 검정색과 회갈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머리카락 톤의 경우 모든 유형이 어두운 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가을이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눈동자 색의 경우 여름은 회갈색, 가을은 적갈색, 겨울은 회갈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눈동자 톤의 경우 모든 유형이 어두운 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유형별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조화요인의 경우 피부색이 밝고 투명해지면서 붉은색과 노란색이 감소되며 얼굴형태의 경우는 입체적이면서 주름이나 그늘, 각이 희미해지는 변화요인으로 단점이 보완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부조화요인으로서는 피부색이 칙칙해지면서 어두워지고 붉은색과 노란색이 증가하며 얼굴형태의 변화는 주름, 그늘, 잡티, 여드름이 짙어지면서 얼굴이 평면적이며 각이 두드러지는 변화요인으로 단점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일곱째, PCS 진단 프로그램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는 여름>가을>겨울>봄으로 차지해 여름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봄유형, 복합1(봄&여름),복합2(봄&가을)유형의 경우는 빈도가 극히 미비하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피부바탕색과 그에 따른 퍼스널컬러색상의 유형은 제 1 요인인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에서는 차가운 요인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제 2 요인인 톤(TONE)에서 소프트(Soft)와 하드(Hard)에서는 소프트한 요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덟째, 유형별 신체색상의 Lab값과 HVC값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 1) 따뜻함(Warm)유형과 차가움(Cool)유형을 비교했을 때 L(밝기)평균은 비슷한 밝기로 나타났고 a(적색도)평균은 따뜻함(Warm)유형은 5.43이고, 차가움(Cool)유형은 5.82로 평균값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차가움(Cool)유형의 경우 a(적색도)값이 낮을 경우 b(황색도)값이 낮게 나타났다. b(황색도)평균은 따뜻함(Warm)유형은 18.66이고, 차가움(Cool)유형은 15.98로 따뜻함(Warm)유형이 차가움(Cool)유형보다 노랗게 나타났다.

색상(H),명도(V),채도(C)평균은 따뜻함(Warm)유형이 8.8YR6.6/3이고, 차가움(Cool)유형은 7.7YR6.5/2.7로 낮다. HVC값에서는 H(색상)값이 YR값이 높을수록 따뜻함(Warm)유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따뜻한 유형은 노르스름한 기미가 강하고 차가운 유형은 붉은 기미가 강하게 나타났다.

- 2) 유형별의 Lab값과 HVC값의 평균은 343명중 봄, 복합1(봄&여름),복합2(봄&가을)에 해당하는 대상이 7명으로 그 수가 극히 적으므로 유형의 분석에서 제외하고 여름, 가을, 겨울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Lab값에서 L(밝기)평균은 겨울68 > 가을67.83 > 여름66.94로 겨울이 가장 밝게 나타났으며 a(적색도)평균은 여름5.91 > 겨울5.27 > 가을 5.26으로 겨울과 가을은 비슷한 적색도를 지니고 있고 그에 비해 여름은 붉게 나타났다. b(황색도)평균은 가을18.73 > 겨울 16.08 > 여름 15.96으로 가을이 가장 노랗게 나타났다. HVC값에서 H(색상)의 평균은 가을8.8YR > 겨울8.0YR > 여름7.6YR로 가을이 가장 노랗게 나타났다. V(명도)는 모두 비슷한 밝기로 나타났다. C(채도)는 가을3> 여름2.7=겨울2.7로 가을이 채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홉째, 따뜻함(Warm)과 차가움(Cool)유형의 대한 3개 군집의 Lab값과 HVC값보면 따뜻함(Warm)유형은 1집단인, 차가움(Cool)유형은 2집단과 3집단에 많은 분포를 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여름은 2집단, 가을은

1집단 ,겨울은 3집단에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다. 343명중 따뜻함(Warm)유형에 속하는 77명의 군집별 빈도는 1군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64명은 차가움(Cool)유형에 속하며 군집별 빈도는 2군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유형의 군집별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따뜻함(Warm)유형은 차가움(Cool)유형에 비해 피부색이 밝으며 붉은 색이 적고 노랗게 나타났다. 반면에 차가움(Cool)유형은 따뜻함(Warm)유형에 비해 피부색은 약간 어두우며 노란색이 적으며 붉게 나타났다.

열째, 따뜻한 집단과 차가운 집단의 유형분류에 있어서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예측 가능한 변수로는 Lab값과 HVC값 중 a(적색도), b(황색도) 변수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열한째, 지역(출생지)별로 유형의 차이는 북쪽지역이 남쪽지역에 비해 비교적 차가운 유형이 59.2%로 더 많이 분포되고 남쪽지역은 북쪽지역에 비해 비교적 따뜻한 유형이 56.9%로 더 많이 분포되었다.

이상의 요약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메이크업, 헤어, 의상의 색상과의 조화에 있어 피부색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퍼스널컬러시스템에 따른 한국인의 컬러이미지 유형은 따뜻한 유형보다 차가운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났고 차가운 유형 중에서도 여름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따뜻한 유형 중에서도 봄의 유형은 그 빈도가 극히 미비하게 나타났다.

색채 진단시 변인을 보면 육안시법인 컬러 진단천을 통해서는 피부색과 얼굴형태변화요인에서 조화요인과 부조화요인에 따라 구분하고 측색기를 통해서는 Lab값에서 a값, b값과 HVC값에서 H(YR)값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개개인마다 퍼스널 컬러는 다르지만 한국인은 비교적 차가운 계열의 부드럽고 화사한 파스텔과 부드러운 색을 중심으로 온화하며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적인 이미지로 콘트라스트가 강하지 않는 섬세한 계열의 색이 많이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메이크업, 헤어, 의상 등 컬러 이미지연출에 있어서 개개인에 따른 퍼스널컬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시켜주고 그에 따른 활용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이 여성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역이 한정되어 폭 넓은 대상과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는데 제한이 되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면접조사로 이루어져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있었다. 한 사람에게 15~20여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자연광이 비치는 곳에서 진단을 해야하기에 많은 인원을 조사하기가 어려운 점이었다.

앞으로 후속연구는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유형의 분포와 요인분석을 위해 폭 넓은 연구대상과 지역별로 유형분석이 이루어져 유형별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퍼스널컬러 유형분석에 따라 메이크업, 헤어, 의상에 따른 컬러 이미지연출을 세분화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퍼스널 컬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컬러진단 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퍼스널 컬러를 이해하여 관련분야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색채 계획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

행의 흐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좀더 객관적 기준이 되어 활용할 수 있는 색채 기초데이터를 제시하게 된다. 감성시대 소비자의 요구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선호하는 색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색 중에서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제안하는 것이 더욱 더 경쟁력이 크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메이크업, 헤어, 의상 등에서 컬러이미지연출에 필요한 퍼스널 컬러분석 데이터를 확보 및 분석하여 활용방법을 제안하고 패션관련 분야의 색채계획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비자의 퍼스널 컬러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장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전략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시하게 된다.

특히, 피부바탕색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메이크업, 헤어, 의상 등의 관련 색채를 활용하는 국내의 뷰티관련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증대시켜 제품판매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 만족을 통해 브랜드의 지속성을 추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뷰티관련분야의 색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가 뷰티 관련분야에서 컬러이미지연출에 있어 활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지은(1989). 우리나라도시여성의 기성복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피부색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3-28.
- 김혜라(1998). 의복소비자의 자기이미지 특성에 따른 제품속성 중요도와 추구혜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2.
- 김낙수(2000). 컬러트렌드 예측을 위한 제품색채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4.
- 류영미(2000).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한국미용학회지, 6(2), p .88.
- 박화순(2000). 대학생들의 퍼스널 칼라 유형분석, 한국색채학회, p. 44.
- 이민아(2001). 한국여성의 피부색 분류와 선호색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9.
- 우연정(1999). 한국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p. 26.
- 이윤주(1999). 색채이미지에 기반 한 패션 색채 계획 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4 -115.
- 이정옥(1998). 의복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생활공간, 의류실루엣, 의복색

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주(2000).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오은경(1990). 한국인의 색채의미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16.

이정원 · 조광수 · 황상민(1998). 색채감성으로 구분된 립스틱 색의 선호도 . 한국색채학회. 6(1). p. 37

이성낙 · 박윤성 · 이해을 · 조정구(1985), 젊은 여성 피부색의 부위별 차이 및 계절적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학회지: 23(2).

정연수(1999). 칼라마케팅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색상산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2.

장수경(1997). 한국 패션의 유행색 정보기획 사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태평양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9). 색채감정을 반영한 Personal Color Design System개발연구. pp. 9, 157.

황상민 · 정주원 · 김종일 · 권기선 · 최유미(1999). 색채이미지의 심리적 분석: 소비자 성향에 따른 색채화장과 구현된 색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p. 24.

태평양화학 미용연구실(1981). 부분미용 전문미용교재, 서울: 태평양화학.
pp.9, 71.

김훈철, 장영렬(1998). 컬러마케팅 전략. 서울: 다원정. p. 77.

김병우(1991). 피부과학. 서울. p. 168.

김진한(2002). 색채의 원리. 서울: 시공사. pp.42,, 111, 203.

권은숙(1995). 색으로 승부 하는 21세기, 서울: 웅진출판사. p. 17.

만리오 부루자탄(1996). 색역사와 이론중심으로. 이수균譯.서울: 미진사, p. 52.

박도양(1995). 실용색채학. 서울: 반도출판사. pp. 72-73.

박은주(1998).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p. 198.

최영훈(1990). 색채학 개론. 서울: 미진사. P. 37.

한국색채학회 1(2001). 색색가지 세상. 서울: 국제, pp. 55, 68 , 113-114 .

한국색채학회 3(2002). 색이 만드는 미래. 서울: 국제, pp. 23, 28.

한국색채학회(2002). 컬러리스트. 서울: 국제, p. 69.

南雪治嘉(1999). 색채표현. 신지식 譯.서울: 조형사.

사토크니오,히라사와데츠야(1998). 감성마케팅,이해선譯, 서울: 그린비. p. 6.

Suzy Chiazzarl(2002). Color. 진현중 譯, 서울: 전원문화사. pp. 27, 29.

요하네스 이텐(1990). 색채의 예술. 김수석 譯. 서울: 지구문화사. p. 160

조필교,정혜민(1999).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p. 85.

<http://www.vildesign.co.kr/colordesign> . 김경인, 2001

<http://www.cyberbeauty.co.kr> . 류은주, 2000

<http://www.iridesign.co.kr>. IRI디자인 연구소

<http://www.encyber.com>. 두산세계백과사전, 2000

Dion, K. K., Berscheid, E. and Walster, E. (1972).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ty and Social Psychology*, 26,

Fujii, Donna (1991). Color with style.Tokyo: Grapic-sha

Hassin R .and Trope Y.(2000). Facing Faces: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of Physiogno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Jackson, Carole(1980). Color me Beautiful. Canada:Acropolis Book, p. 38

Kissinger, Katie(1994). All the colors We Are: The Story of How We Get Our Skin Color, Minnesota: Redleaf Press, pp. 25-26.

Kentner, Bernice (1991). Color Me a Season: How to Find and Use Your Most Flattering Colors. Ken Kra Publishers.

Kobayashi(1981).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6. pp. 93 -107.

Mathis, Darlene(1994). Women of Color, Virginia: Capital Books.

Pooser, Doris (1997). Always In Style. Crisp .

Spillane, M.& Sherlock, C.(1995). Looking Your Best. New York: Madison Books.

Gautier, B. & Juillard, C.(1999). Formes et couleurs: Trouvez Votre Style. Paris: Editions Solar, p. 49.

Petits Pratiques (1997). A chacune ses couleurs. Paris: Hachette.

ABSTRACT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Color Types and Color-Diagnosis Variable Factor : the color of makeup, hair and dress

Hyang Sun Shin

Major in Fashion Marketing

Graduate School of Design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ersonal color system and make a factor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the color of the skin among Korean people in a bid to determine the Korean personal color structure. And it's additionally intended to develop some personal color diagnosis criteria and related visual scales.

To build a theoretical background, theories on color were reviewed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color system, and the color features of individual types, the body and the skin were examined to develop a program to diagnose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typ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43 women in their 20s through 50s from Seoul, Chungju and Ulsan.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an interview was held with each of the women to acquire experimental data about the color of the skin and color-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first diagnosis, visual effect was tested. CM-508i(Minolta) was used to measure the color of the skin. The Lab value and HVC value

were gauged for each of the types, and the color of the skin was categorized with naked eyes.

In the second diagnosis, sensibility(aesthetic effect) test was conducted. The two different PCS Color Test Drape Set, which were respectively manufactured by Stage Color Cosmetics of Germany and by Donna Fujil Institute of the U.S., were utilize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nine samples with different colo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regarding color-related buying behavior, the color of dress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 than that of hair or makeup. The largest group of the women investigated gave priority to the type of color that becomes themselves.

Second, concerning color-related perception, they had a big interest in color and were well aware of its influence. But in many cases, their favorite color didn't correspond to the type of color that suits them.

Third, the most frequently exhibited tone of the skin was a vague one(light/muted) in summer, a dark one(deep/muted) in fall and a vivid one(deep/bright) in winter.

Fourth, as for the response to ultraviolet rays, the warm group got more sunburned than the cold group.

Fifth, concerning the most common harmonic factor, wrinkles and shades got to be visible less and there was a cubic change. As for the most common inharmonic factor, the tone of the skin became dark and dull with deeper wrinkles and shades.

Sixth, in regard to the distribution of the types, the summer type was most prevalent, followed by the fall type, winter type and spring type in

the order named.

Seventh, as to the Lab and HVC averages for each of the types, the cold and warm types were similar to each other in L^* (luminosity). The cold type leaned more toward red, with a higher a^* average, and the warm type was more inclined to be yellow, with a higher b^* average. Regarding HVC average, the skin with a higher YR value was closer to the warm type.

By seasons, L^* (luminosity) average was the highest in winter, and a^* average was similar in winter and fall, but higher in summer. b^* average was the highest in fall. As for HVC average, YR value reached the highest in fall. V(brightness) was similar in all the seasons, and C(chroma) was higher in fall.

Eighth, taking a look at both a^* and b^* , among Lab and HVC values, made a more accurate prediction of the skin type.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the cold color image was more dominant among the Koreans than the warm one, and out of the cold types, the summer type was most prevalent. In the warm types, the spring type was rare.

In the future, it's needed to do more research on a broader range of subjects across wider geographical regions to produce more accurate results.

부

부

1 차 설 문 조 사

안녕하세요.

본 연구자는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패션마케팅 석사과정에서 퍼스널 컬러에 관한 논문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설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패션관련(의상, 메이크업, 헤어)색상에 대해 퍼스널컬러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피부바탕색에 따른 퍼스널컬러 유형별 분포도에 대한 연구입니다.

1차 적으로 설문지에서 인구통계학적분야, 색채관련구매행동분야, 색채인식관련조사 분야와 2차 적으로 면접에서 컬러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퍼스널컬러를 진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자료의 개인관련정보는 다른 용도로 노출되지 않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에 응하시는 모든 분에게 퍼스널 컬러 즉,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채’를 진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기입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패션마케팅
지도교수 원 명 심
석사과정 신 향 선

Q 1. 색채관련 구매행동

귀하의 평소 패션관련 제품을 구입 시 선택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입니다. * 해당 사항에 ☐표하시길 바랍니다.

1. 의복 선택 시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 디자인 ② 색상 ③ 소재
④ 기타 ()

2. 색조화장품 구입 시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 가격 ② 색상 ③ 품질
④ 기타 ()

3. 헤어컬러 염색 시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 가격 ② 색상 ③ 품질
④ 기타 ()

4. 자신의 토털패션상품(의상, 메이크업, 헤어) 구입에 있어 **색채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② 중요하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중요하다 ()
- ⑤ 아주 중요하다 ()

5. 자신의 **의상** 색채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자신이 좋아하는 색 ()
- ②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 ()
- ③ 유행하는 색 ()
- ④ 판매원이 권하는 색 ()
- ⑤ 소유하고 있는 의상과 어울리는 색 ()
- ⑥ 기타 ()

6. 자신의 **메이크업** 색채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좋아하는 색 ()
- ②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 ()
- ③ 유행하는 색 ()
- ④ 판매원이 권하는 색 ()
- ⑤ 기타 ()

7. 자신의 헤어 컬러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

- ① 좋아하는 색 ()
- ②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 ()
- ③ 유행하는 색 ()
- ④ 판매원이나 헤어디자이너가 권하는 색 ()
- ⑤ 기타 ()

Q 2 . 색채인식관련

귀하의 토탈패션관련(의상,메이크업,헤어) 제품에 대한 색채에 관련된 평소의 기호색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1. 색채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심 없다 ()
- ② 관심 없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관심 있다 ()
- ⑤ 아주 관심 있다 ()

2. 자신의 이미지에 색채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 ②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다 ()
- ⑤ 아주 그렇다 ()

3. 자신이 좋아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 ②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다 ()
- ⑤ 아주 그렇다 ()

※ 다음은 의상색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4.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상 색상을 알고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 5 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② 아니다 () ----- 9 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5.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상 색상을 알고 있다면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피부색과의 조화 ()
- ② 자신의 스타일과 조화 ()
- ③ 주변의 반응 ()
- ④ 기타 ()

6.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의상 색상계열을 선택하십시오.()

- ① 빨강계열 ② 주황계열 ③ 노랑계열 ④ 연두계열 ⑤ 녹색계열
- ⑥ 청록계열 ⑦ 파랑계열 ⑧ 남색계열 ⑨ 보라계열 ⑩ 자주계열
- ⑪ 갈색계열 ⑫ 베이지계열 ⑬ 검정계열 ⑭ 흰색계열 ⑮ 회색계열
- 기타 ()

7.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의상의 색의 밝기(명도)정도를 선택하십시오.

- ① 밝은 색 계열 ()
- ② 중간 색 계열 ()

- ③ 어두운 색 계열 ()
8. 자신이 평소 즐겨 입는 **의상**의 색이 무슨 색인지 나열하십시오.
()

※ 다음은 메이크업 색상관련 문항입니다.

9. 귀하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하십니까?
① 그렇다 () ----- 10 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다 () ----- 16 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10.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을 알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 11 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다 () ----- 16 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11.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을 알고 있다면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피부색과의 조화 ()
② 의상과의 조화 ()
③ 주변의 반응 ()
④ 기타 ()
12.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파운데이션(투웨이 케익)** 메이크업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① 밝고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밝은 색) ()
② 밝고 아이보리빛이 도는 베이지 (밝은 색) ()
③ 핑크빛이 도는 내추럴 베이지 (중간 색) ()
④ 산호빛이 도는 내추럴 베이지 (중간 색) ()
⑤ 붉은 톤의 올리브 베이지 (짙은 색) ()
⑥ 황색 톤의 올리브 베이지 (짙은 색) ()
* 현재 사용하는 제품의 색상이름과 호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적어주세요.
()
13. 자신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파우더** 메이크업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① 흰색 파우더 ② 투명(색상이 없는) 파우더
③ 핑크 파우더 ④ 산호(복숭아빛-오렌지계열) 파우더
⑤ 베이지 파우더 ⑥ 연보라 파우더
⑦ 기타 ()
14. 자신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아이 섀도우** 메이크업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① 브라운계열 ② 오렌지계열
③ 핑크계열 ④ 그린계열
⑤ 와인계열 ⑥ 블루계열
⑦ 퍼플계열 ⑧ 기타 ()
15. 자신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립스틱** 메이크업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① 브라운계열 ② 오렌지계열
③ 핑크계열 ④ 레드계열

⑥ 제주도 ()

2 차 면 접 조 사

- . 1단계 - 피부바탕색 진단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 구분)
- . 2단계 - 1차 진단분석 : 찬색과 따뜻한 색 구분
- . 3단계 - 2차 진단분석 : 사계절 유형별 구분

1 단계 - 1 차 신체색상 분석

I -1. 피부톤 The Skin Tone - 색상

- (a). 노란색 톤 (노르스름한 기미) Golden undertones / Yellow Beige
- (b). 갈색 톤 (갈색 기미) Brown undertones / Olive Beige
- (c). 핑크색 톤 (희고 푸르스름한 기미) Pink undertones / Fair Olive
- (d). 붉은색 톤 (붉으스름한 기미) Rosy undertones / Rose Beige

I -2. 피부톤 The Skin Tone - 명도

- (a). 밝은 톤 Light
- (b). 중간 톤 Medium
- (c). 어두운 톤 Dark

I -3. 피부톤 The Skin Tone - 채도

- (a). 투명한 피부 - 얇고 윤기있는
- (b). 매트한 피부 - 건조하고 불투명한

II -1. 머리카락색 Hair Color - 색상

- (a). 황갈색 Golden Brown
- (b). 적갈색 Auburn Brown
- (c). 회갈색 Gray Brown
- (d). 검정색 Black

II -2. 머리카락색 Hair Color - 명도

- (a). 밝은 톤 Light
- (b). 중간 톤 Medium
- (c). 어두운 톤 Dark

III -1. 눈동자색 1 Eye Color - 색상

- (a). 황갈색 Golden Brown
- (b). 적갈색 Auburn Brown
- (c). 회갈색 Gray Brown
- (d). 검정색 Black

III -2. 눈동자색 2 Eye Color - 명도

- (a). 밝은 톤 Light
- (b). 중간 톤 Medium
- (c). 어두운 톤 Dark

IV. 신체색상(피부색,머리카락색,눈동자색) 의 톤

- (a). 밝은 톤 Light - 밝은 톤의 조화
- (b). 선명한 톤 Bright/ Vivid - 강한 대비의 조화
- (c). 흐린 톤 Muted / Soft - 비슷한 톤의 조화
- (d). 짙은 톤 Deep - 어두운 톤의 조화

V.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의 반응

- (a). 햇볕에 잘 타지않은 타입 - 붉어지는 것이 없어지면 다시 원상태(하얗게)로 돌아가는 타입
- (b). 햇볕에 잘 타는 타입 - 쉽게 타고 잡티나 기미가 잘 생기며 상처가 났을 때 흔적이 오래가는 타입.

2단계 - 2 차 진 단 분 석

< 피부색과 색상별 조화 분석 - PART 1 >

색상별	변화인자	변 화 요 인				진단
		조화 요인		부조화 요인		
Beige (W)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없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Gray (C)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없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 귀하의 출생지

- | | |
|---------------|-----------|
| ① 서울, 경기도 () | ② 강원도 () |
| ③ 충청도 () | ④ 경상도 () |
| ⑤ 전라도 () | ⑥ 제주도 () |

< 피부색과 색상별 조화 분석 - PART 2 / 3 >

색상별	변화인자	변 화 요 인				진단
		조화 요인		부조화 요인		
gold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Silver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black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brown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 피부색과 색상별 조화 분석 - PART 4 >

색상별	변화인자	변 화 요 인				진단
		조화 요인		부조화 요인		
light greenish blue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light blue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cobalt blue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dark blue green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 피부색과 색상별 조화 분석 - PART 5 >

색상별	변화인자	변 화 요 인				진단
		조화 요인		부조화 요인		
coral pink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light pink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magenta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peach pink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 피부색과 색상별 조화 분석 - PART 6 >

색상별	변화인자	변 화 요 인				진단
		조화 요인		부조화 요인		
Aquamarin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light graysh green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dark blue green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dark olive green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 피부색과 색상별 조화 분석 - PART 7 >

색상별	변화인자	변 화 요 인				진단
		조화 요인		부조화 요인		
bright red - carmine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strong violet- mauve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burgundy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burnt sienna- brown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 피부색과 색상별 조화 분석 - PART 8 >

색상별	변화인자	변 화 요 인				진단
		조화 요인		부조화 요인		
goldsh yellow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pale cream yellow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bright lemon yellow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dull yellow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변화없음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 피부색과 색상별 조화 분석 - PART 9 >

색상별	변화인자	변 화 요 인				진단
		조화 요인		부조화 요인		
Red (W)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Old Rose (C)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Magenta (C)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Salmon pink (W)	피부색 변화	(색상) 붉은색 감소		붉은색 증가		조화 () 부조화 ()
		노란색 감소		노란색 증가		
		(명도) 밝아짐		어두워짐		
		(채도) 투명해짐		칙칙해짐		
	얼굴형태 변화	입체적		평면적		() 변화없음 ()
		얼굴의 각이 부드러워짐		얼굴의 각이 두드러짐		
		잡티,기미,여드름희미해짐		잡티,기미,여드름 짙어짐		
		주름,그늘이 열어짐		주름,그늘이 짙어짐		